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1. 27.(수), 14:00 ~ 18: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의원 : 백인성, 기근도, 박종민, 이유미,
최종희, 신정일 이정모, 정부희,
정명섭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설명)	(공개)
2	「제주 용천동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설명)	(공개)
3	「제주 용천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설명)	(공개)
4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북면 103호 원교 가교설치(*설명)	(공개)
5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내외 주변정비(*설명)	(공개)
6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허가사항 변경(*설명)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 지구 개발 허가사항 변경(*설명)	(공개)
8	「고창 삼인리 송악」 등 내외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설명)	(공개)
9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하용머리 매포소 이전 신축	(공개)
10	「영월 한반도 지형」 내 탐방시설 정비	(공개)
11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부도전 조성	(공개)

【검토사항】

12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설명)	(공개)
13	「상주 두곡리 뽕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14	「합천 해인사 학사대 잔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검토	(공개)

【보고사항】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9건)	(공개)
----	-----------------------------	------

【심의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11-01

1.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외
 - 지 정 일 : 1971.9.30.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상수도시설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28-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상수관(직경 100mm) 2,745m 매설
 - * 소천굴 문화재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유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3, 5구역
 - * 허용기준 3구역 : (평지붕) 최고높이 8m, (경사지붕) 12m
 - * 허용기준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내외 상수관을 매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1.12.)

<*** 문화재위원>

- 급수환경 개선을 위한 관로 증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관 매설을 위한 기존 관로의 제거 과정에 유발 될 수 있는 진동의 제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 관로의 제거 과정에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회 및 감독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하며, 작업 과정 동안 이 지역 동굴 내에서의 낙석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
-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피복부에 대한 절단과 굴삭기 등을 이용한 굴착 시 발생하는 진동 수치에 대한 계측을 전 과정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문화재전문위원>

- 기존 상수관(D80mm)이 매설되어 있는 구간에 상수도 교체(D100mm)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도로변의 길어깨 구간을 따라 시공하며, 문화재지정구역과 3구역은 인력으로 터파기를 계획함.
- 제출된 사업계획의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음
 - 포장절단(콘크리트 커터기)→포장건어내기(굴삭기)→터파기(인력터파기)→관수설(인력부설)→되메우기(하중차량다짐(15ton덤프트럭))→포장복구
-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하여야 함.
 -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포장절단, 포장건어내기, 되메우기 시에는 문화재지정구역 내 상부지표에 대한 진동측정과 동굴내부 낙석모니터링 실시
 -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포장절단, 포장건어내기, 되메우기 시 소천굴 상부지표에서 일정거리 간격으로 진동을 측정하여야 함.
 - 소천굴의 수직 상부지표(0m), 약 5m, 10m, 20m, 50m 이격지점
 - 진동원과 진동기 설치지점에 대한 거리와 작업내용(장비, 사용시간, 중장비 이동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포장절단, 포장건어내기, 되메우기 시 소천굴 내부 통로 구간에 낙석에 대한 모니터링
 - 소천굴 내부통로 구간에 흰색천막 등을 사용하여 낙석 모니터링
 - 공사시작 전과 후까지 모니터링
 - 소천굴 상부지표에 중장비 등이 밀집하여 정차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함

- 진동과 낙석모니터링 측정 중 이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공사를 멈추고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 진동과 낙석모니터링 자료는 공사 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자료는 향후 현상변경 신청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2) 지자체(*****) 의견(2019.5.10.)

- 사업구간은 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문화재구역 일부저축,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3구역(평지붕5m, 경사지붕 7.5m), 5구역(도시계획등관련법 처리)에 해당되며 상수관로 매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임. 상수관로 매설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결과, 사업부지가 소천굴과 연결해 있어 경관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른 진동 발생으로 인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있었음. 이에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으로 문화재와의 경관, 동굴보존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의결과 도출이 필요.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굴착 및 되메우기시에는 무진동 공법을 사용하고 문화재지정구역 및 3구역은 인력터파기 실시
 -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서는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포장절단, 포장 걷어내기, 되메우기 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진동측정 및 낙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사 후 자료 제출
 - 진동 측정과 낙석 모니터링 결과는 주단위로 보고하고 측정 중 이상이 발생하면 공사 중지 및 보고
 - 공사 시 상부지표에 중장비 등이 밀집하여 정차하는 것을 최소화
 - 공사 후 되메우기 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고유동성 채움재 사용은 관계전문가 자문 후 적용 가능 여부 보고
 - 토사구간 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장구간의 복구는 관련법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굴착을 하지 않고 걷어낼수 있는 돌포장 등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 참고자료

□ 위치도



2. 「제주 용천동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주 용천동굴」 내외 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06.2.7.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상수도시설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상수관(직경 100mm) 635.6m 매설
 - * 용천동굴 문화재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우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용천동굴」 내외 상수관을 매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1.12.)

<*** 문화재위원>

- 노후 상수관의 누수 현상에 따른 관로 교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관 매설을 위한 기존 관로의 제거 과정에 유발 될 수 있는 진동의 제어와

외부 물질 유입 차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 관로의 제거 과정에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회 및 감독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하며, 작업 과정 동안 이 지역 동굴 내에서의 낙석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
-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피복부에 대한 절단과 굴삭기 등을 이용한 굴착 시 발생하는 진동 수치에 대한 계측을 전 과정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기존 관로 제거 후 신관 매설을 위한 복토에는 최대한 기존 석회질 토사와 동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외부 토사의 유입은 억제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 상수도 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에 따른 수압 관리의 문제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문화재구역 내 노후관로 개량
- 용천동굴 입구주변의 삼거리에서부터 김녕사굴식당까지 약 635.6m 구간 내 기존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
- 용천동굴 입구주변의 삼거리 구간(약 36.1m-아스콘 구간으로 콘크리트 포장 깨기, 아스팔트 포장깨기)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사구간
- 시작지점인 용천동굴 입구주변의 삼거리는 지표에서 약 0.95m, 종점인 사굴식당은 지표에서 약 0.7m 심도
-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하여야 함
 - 현상변경 신청 구간 중 총 3곳 중 2곳은 용천동굴과 김녕사굴 상부지표를 관통하고 1곳은 관통하거나 거의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 지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동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천동굴 입구주변의 삼거리(도로횡단관로)
 - 콘크리트 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깨기 등의 진동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용천동굴의 수직 상부지표(0m), 약 5m, 10m, 20m, 30m 이격지점 측정
 - 동굴내부에 흰색천막 등을 사용하여 낙석 모니터링
- 중간지점의 삼거리
 - 토사구간의 굳어 있는 상부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사용 시 용천동굴의 수직 상부지표(0m), 약 5m, 10m, 20m, 30m 이격지점 측정
 - 동굴내부에 흰색천막 등을 사용하여 낙석 모니터링, 탄산염동굴생성물이 분포하는 구간으로 반드시 내부에 낙석 모니터링 필요
- 사굴식당 옆 김녕사굴 상부지표
 - 토사구간의 굳어 있는 상부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사용 시 용천동굴의 수직 상부지표(0m), 약 5m, 10m, 20m, 30m 이격지점 측정

- 동굴내부에 흰색천막 등을 사용하여 낙석 모니터링
- 진동원과 진동기 설치지점에 대한 거리와 작업내용(장비종류, 사용시간, 중장비 이동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앞의 세 지점 구간에 대해서는 동굴상부지표에 중장비 등이 밀집하여 정차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토사구간의 기존의 노후된 관로를 교체한 후에 매설할 때에 관로 하부의 바닥정비와 상부에는 주변의 사구와 같은 모래를 사용하여야 함. 특히, 용천동굴 입구에서부터 김녕사굴 상부지표 전의 사구둔덕 지점까지는 주변의 사구와 같은 모래를 사용하여야 함. 이러한 탄산염동굴생성물을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 상부지표의 모래(탄산염)이며, 용천동굴입구에서 상류방향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음.
- 진동과 낙석모니터링 측정 중 이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공사를 멈추고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 진동과 낙석모니터링 자료는 공사 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자료는 향후 현상변경 신청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2) 지자체(*****) 의견(2019.11.21.)

- 현상변경 허가신청 토지(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4번지 일원)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동굴상층으로부터 이격거리20m)으로 의견 제출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한 바,
-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 및 되메우기 시에는 무진동 공법 및 최근 개발 상용화된 CLSM(고유동성 채움재)를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하고 용천동굴 상부를 횡단하는 매설관로(광케이블, 상수관로, 하수관로, 오수관로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지하공동구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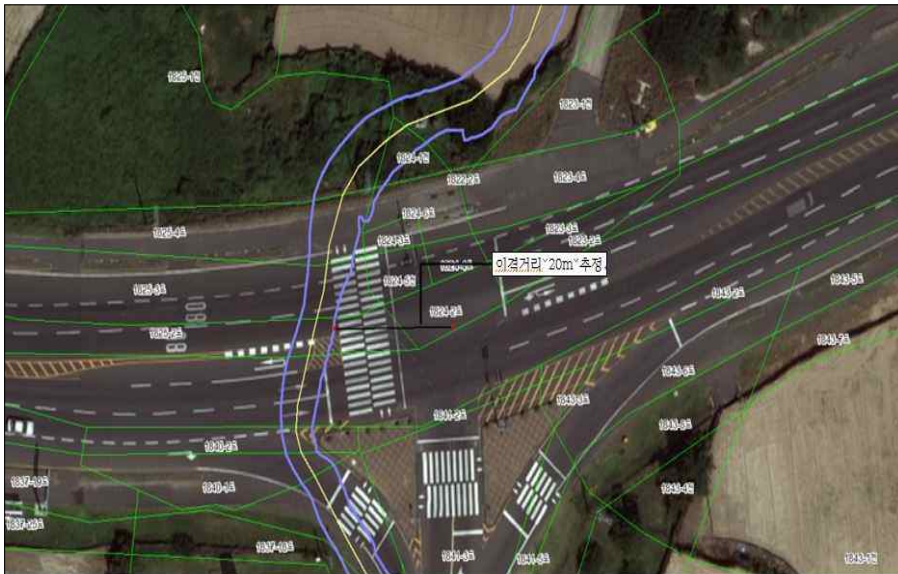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굴착 및 되메우기 시에는 무진동공법을 사용하고, 용천동굴 입구주변 삼거리 구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구간 36.1m)부터 종점방향으로 50m까지는 인력터파기 실시
 -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는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포장절단, 포장걸어내기, 되메우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진동측정 및 낙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사 후 자료 제출
 - 진동측정과 낙석모니터링 결과는 주단위로 보고하고 측정 중 이상이 발생하면 공사 중지 및 보고
 - 공사시 상부지표에 중장비 등이 밀집하여 정차하는 것을 최소화
 - 복토 시 최대한 기존 석회질 토사와 통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외부 토사의 유입은 억제되어야 함
 - 공사 후 되메우기 시 진동을 최소화하기위한 방법인 고유동성 채움재 사용은 관계전문가 자문 후 적용 가능 여부 보고
 - 토사구간 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복구는 관련법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굴착을 하지 않고 걷어 낼 수 있는 돌포장 등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 참고자료

□ 상수도 매설 위치도



□ 공사시작부분 동굴 위치도



안전번호 천기 2019-11-03

3. 「제주 용천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주 용천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06.2.7.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44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800㎡
 - 건축(연)면적 97.72㎡(145.34㎡) / 1층 97.72㎡, 2층 47.62㎡
 - 건물높이 6.3m (지상2층/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 부지내 약 1.5m 성토 예정(성토 수량 약 850.05㎡)
 - 매설 : 전선관 269.7m, 상수관 288.90m / 부지의 구간은 약 1m 깊이 터파기 필요
 - 사업기간 : 2020.1.5. ~ 2021.12.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결
 - * 허용기준 2구역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2구역	○ 건축물 1층 이하 (평사지붕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사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에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용천동굴」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1.12.)

<*** 문화재위원>

- 건물 신축에 수반되는 상수도관 매설과 정화조 설치 등에 의한 진동과 오수 침투의 위험성이 이 지역 동굴(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물리적 안정성과 동굴 생성물의 생화학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번 신청 건처럼 이 지역 일대(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서의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의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상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완충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과 구역 등급에 대한 실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 오수를 자연 침투시키는 방법(침투조-자체침투조)에 있어서 현무암의 갈라진 틈과 기타 절리 등의 틈을 따라 동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허용기준에 있어서 용량에 대한 단순 기준치가 아닌 주변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개발 행위 등으로 개발압력(건축행위 등)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문화재지정구역을 관통하는 구간에 대한 터파기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진동에 의한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재지정구역을 관통하는 터파기는 동굴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오페수는 정화가 되더라도 동굴 내에 침투하여 동굴생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구역 내의 공사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핵심 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완충구역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하여 국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세계자연유산의 완충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상변경 구역과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함.

(2) 지자체(*****) 의견(2019.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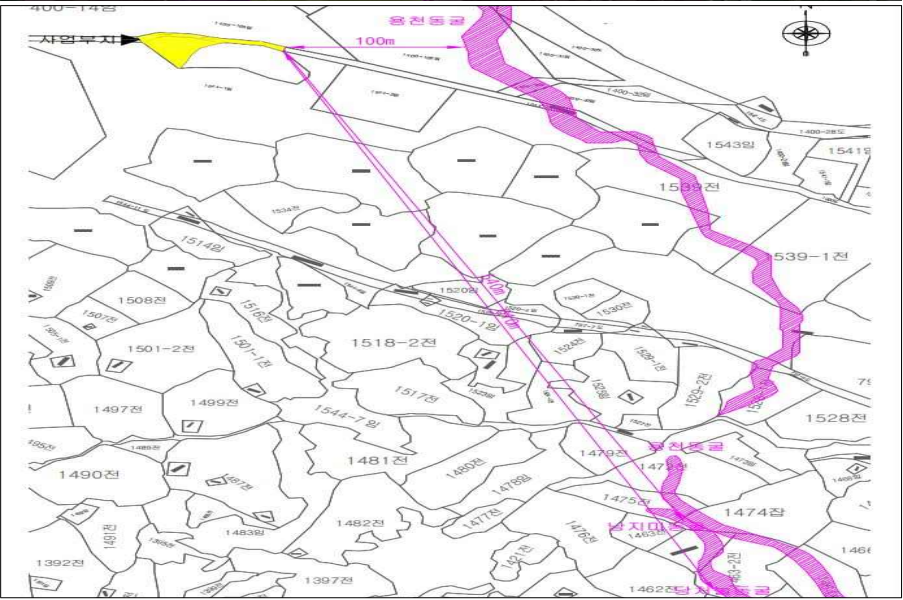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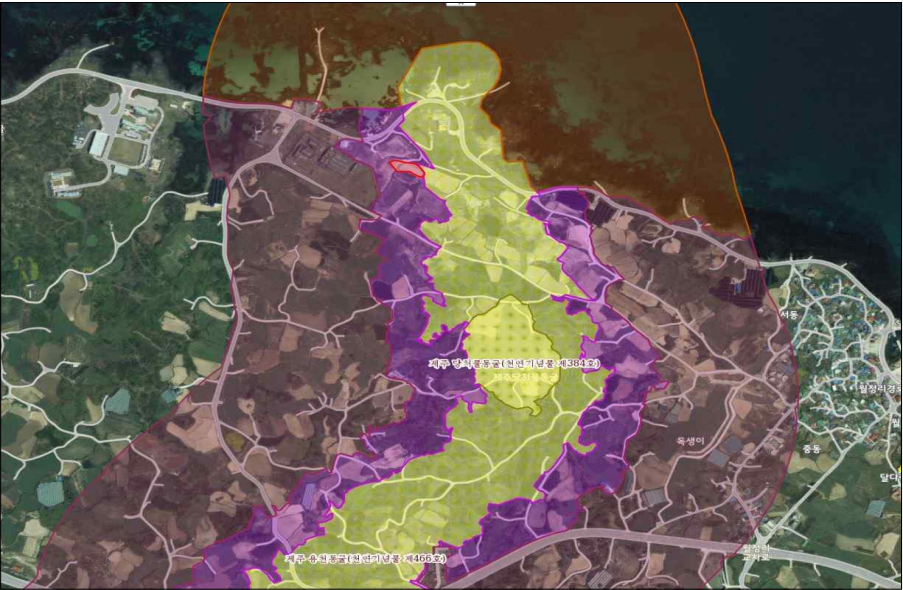
- 현상변경 허가신청 토지(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44번지)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구역(동굴상층으로부터 이격거리 88m)에 해당됨.(붙임 현황도 참고)
- 단독주택 신축부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토지 대부분이 모래로 이루어졌으며 상수도, 오수정화조, 전선관 매설 시 동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공이 필요
- 상기 행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고시된 토지와 임야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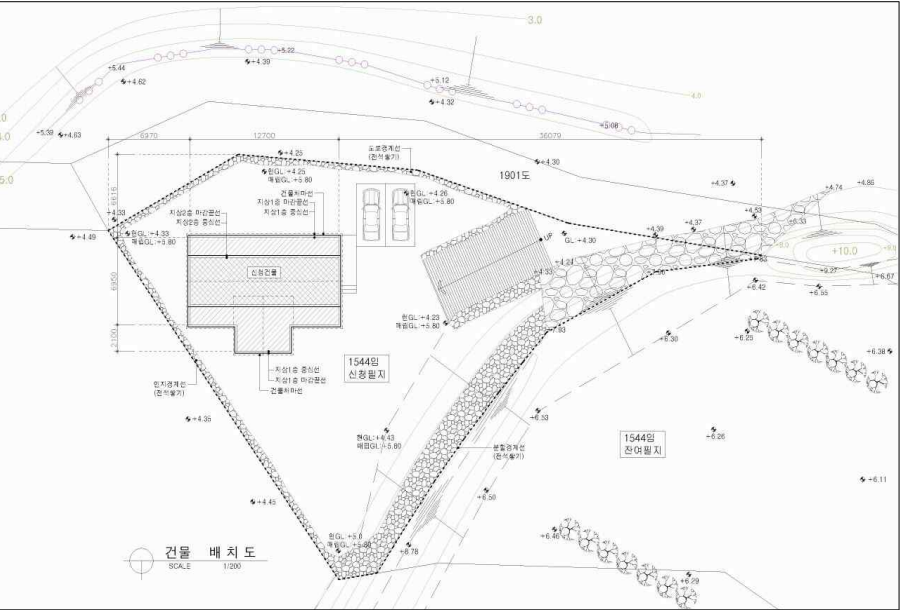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부결
 - 상수도 및 전선 매설을 위한 터파기 시 진동발생과 오수 침투의 위험성이 있어 동굴의 물리적 안정성과 동굴생성물의 생화학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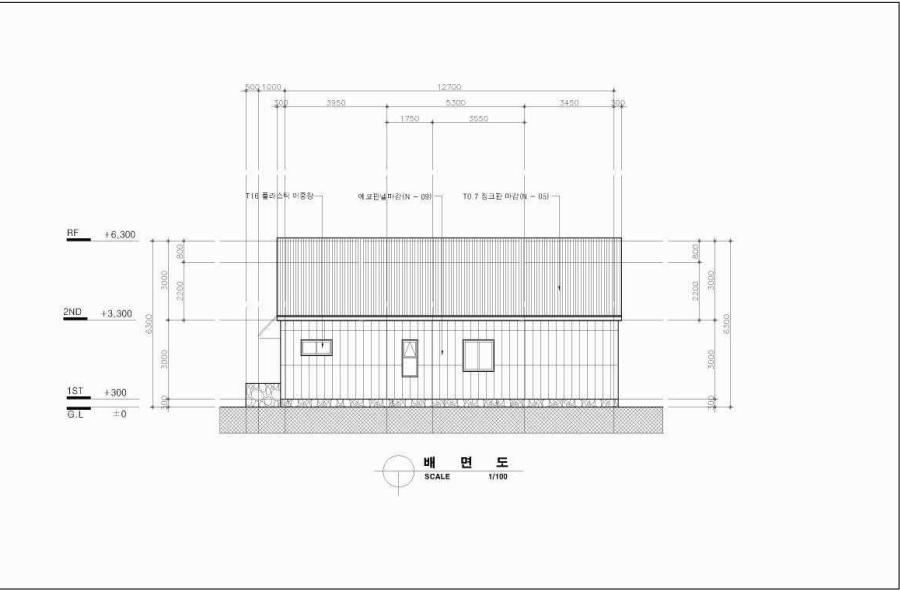
※ 참고자료
□ 위치도



□ 건축배치도



□ 건축 배면도



4.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북면 103호 원교 가교설치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북면 103호(백담선) 원교 가교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북면 103호(백담선) 원교 가교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부
 - 지 정 일 : 1965.11.5.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북면 103호(백담선) 원교 가교설치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62-2번지 외 2필지
 - 사업내용 : 가교 설치
 - 토목공사 : 흙쌓기 900㎡, 터파기 325㎡, 되메우기 77㎡
 - 가교설치 L=70m, B=6m
 - 전석쌓기(H1~6.7m) A=468㎡, L=141m
 - 콘크리트포장(B=6m), L=60m, 가드레일 설치 L=100m
 - 수목벌채 111주
 - 소나무 20주(B10~B42cm, H7m~H16m)/대경목 1주 B64cm, H18m
 - 잣나무 2주(B10cm, H6m), 신갈나무 25주(B6~B28cm, H8~H14m)
 - 물푸레나무 22주(B6~B36cm, H8~H14m)
 - 기타활엽수 41주(B6~B24cm, H7~H12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된 교량의 해체 후 재설치를 위해 사전 우회 가교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원교 : 준공년도 1969년 /규모 RC-T Beam, L=60m, B=5.7m(유효폭4.2m)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1.13.)

<*** 前문화재위원>

- 현재 매년 60만명 정도의 탐방객이 수송버스를 이용하여 백담사를 방문하고 있으며, 탐방객 수송버스가 운행 중인 백담사 인근 교량(북면 103호 백담선)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가교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건임.
- 다리 하부의 가로형 상판의 부식 현장과 가교 설치 예정구간에 대한 수목의 상태, 토목공사 내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원교의 해체 및 복원 작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가교 설치 구간에 포함된 작은 굵기의 신갈나무 등의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가교 설치 구역 내 (용대리 방향의 계곡 옆)의 대경목 소나무 보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2) 지자체(****)의견(2019.11.20.)

- 해당 원교는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 D등급 판정되었으며, 현장점검 결과 원교 하부의 훼손상태가 심각하고 차량진입 시 심한 진동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연간 60만 여명이 찾는 백담사 탐방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교 설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교설치 사면 및 하상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것
 - 가교 철거 후 주변환경 복구 계획서를 사전에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5.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내외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내외 주변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내외 주변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1423번지
 - 지 정 일 : 2013.3.1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주변정비(석축 등)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1423번지 외
 - 사업내용 : 주변정비
 - 석축쌓기 42m² (L=32m, H0.6~1.1m)
 - 식생토낭쌓기 64m² (L=32m, H1.6~2.0m)
 - 자연석 계단설치 12단 (L=4.5m, W=2.0m, H1.8m)
 - 배수로정비 측구수로관 L=74m, 맨홀 1개소, PE이중벽관 L=30m
 - 잔디식재 310m²(32m*4.0~8.0m=280m², 10m*1.0~3.0m=30m²)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8.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2구역
 - * 허용기준 2구역 : (평지붕)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8m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내외 사면보강 등 주변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0.14.)

<*** 문화재위원>

- 탐방로변 사면의 부분적인 붕괴와 붕락 현상 방지를 위한 사면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면 정비계획은 요선암 주변의 지형과 식생 등 자연 경관 훼손의 최소화 바탕 위에서 접근해야 함.
 - 사면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보다는, 사면이 파괴되어 있거나 붕락의 위험이 있는 사면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보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석축에 사용할 암석은 회백색 계열의 화강암을 이용해야 하며, 형태는 각형이 아닌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돌을 사용하고, 돌의 크기가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정비 대상 사면에 생육하는 식생의 수령과 생육 상태 등을 바탕으로, 보존과 제거 대상의 선별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문화재지정구역 및 2구역에 사면을 보강하기 위해 석축 및 식생토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지에 사면붕괴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식생 보존을 위한 방안이 미비되어 있고 사면붕괴현상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하며, 현재 형성된 하천 사면에 대한 수리적 이해도가 부족하여 시행하고자 계획한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제시한 계획안대로 석축(L:70m, H:0.1~1.5m)과 식생토낭(L:78m, H:2.0m)을 설치할 경우, 시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형과 식생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식생보호방안, 사면붕괴 현상과악, 경관적 영향 최소화 방안이 전제된 상태로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가급적 석축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19.11.11.)

<*** 문화재위원>

- 사면 정비 대상을 기존 석축의 훼손부에 제한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은 1차 신청된 정비계획에서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석축 정비의 경우,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위해 허튼층쌓기가 아닌 모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한 허튼쌓기(막쌓기) 방식으로 변경.
- 사면 상부에 대한 식재의 경우, 잔디 식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계단 정비의 경우, 정형화된 계단석을 이용한 일률적인 축조를 지양하고, 둥근 형태의 자연석(화강석)을 사용하여, 허튼 방식으로 축조.
- 궁극적으로 사면 정비 결과의 전반적인 외관 특성이 최대한 곡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시 설계와 시공과정에 자연유산 조경분야 전문가의 자문 수반.

(2) 지자제(****) 의견(2019.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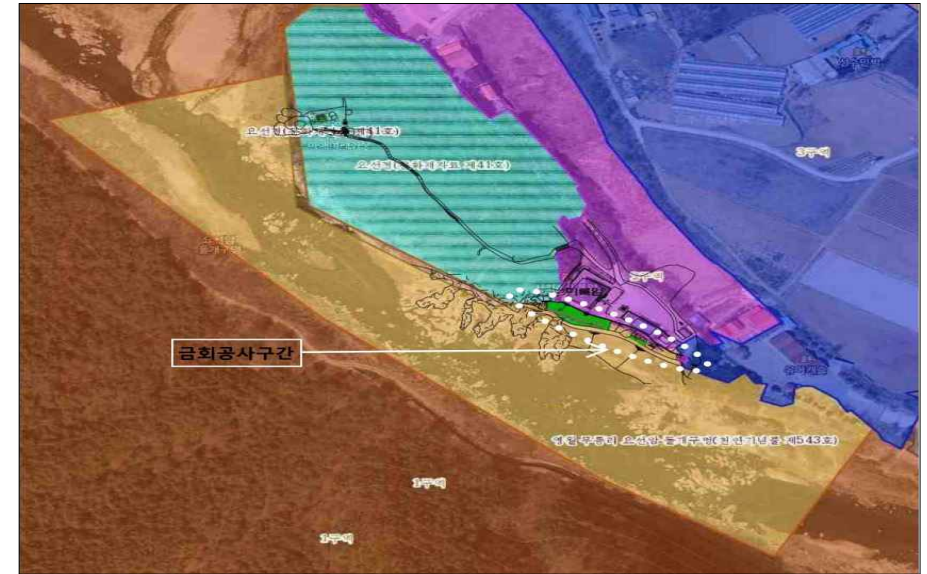
- 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탐방로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 및 강원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임.
- 요선암 돌개구멍은 하천에 위치하여 이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천변의 탐방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잦은 수해로 인하여 일부 유실되거나 훼손되어 있고 탐방객의 안전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요선계와 무릉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요선암 돌개구멍과 요선정을 찾는 탐방객의 정비 요청 민원을 통해 올해 예산(군비)을 확보하여 문화재 실측설계업체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음.
- 본 정비사업을 통하여 향후 요선암 돌개구멍을 비롯하여 인접해 있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 요선정 등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문화재 주변 미관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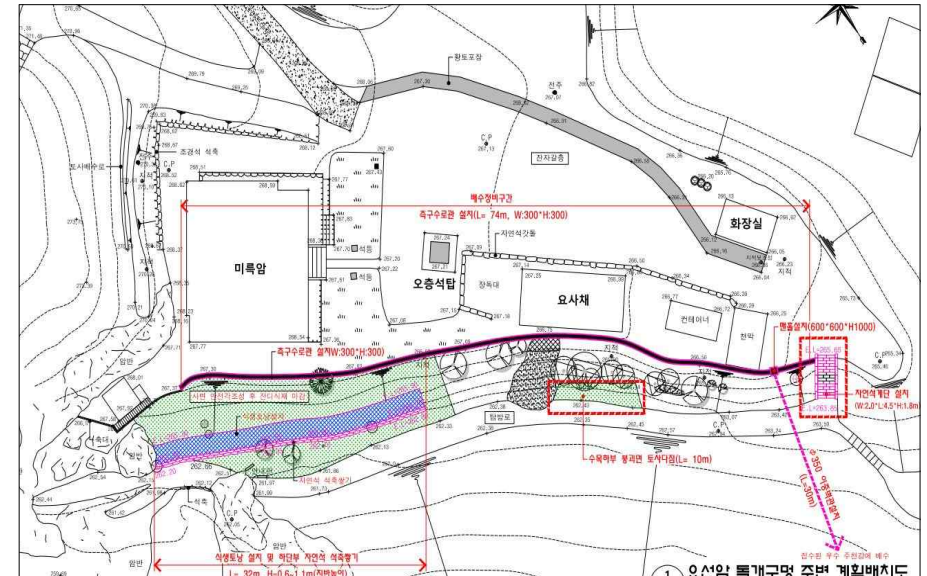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아래 사항을 반영한 변경 설계도서를 공사 시행 전 문화재청에 제출 할 것
 - 미륵암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후 보고
 - 잔디 식재 예정구간에 관계전문가 자문 후 지역의 자생식물 식재
 - 계단 정비 시 정형화된 계단석을 이용한 일률적인 축조를 지양하고, 둥근 형태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허튼 쌓기 방식으로 축조
 - 식생토낭 쌓기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암석과 흙을 사용하여 뒤채움 방식으로 변경
 - 사면의 덩굴 정리 및 관리
 -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 자연유산 조경분야 전문가 자문 수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 참고자료

□ 위치도



□ 공사계획 배치도



6.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16. 5.25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6년 5차) 심의 **보류**
 - * 보류사유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6. 6.22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6년 6차) 심의 **부결**
 - * 부결사유 : 사업시행에 따라 재두루미를 비롯한 희귀 철새들의 서식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17. 4.26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7년 4차) 심의 **부결**
 - * 부결사유 : 사업시행이 재두루미를 비롯한 희귀 철새의 도래와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음
 - '17. 7.26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7년 7차) 심의 **가결**
 - * 문화재구역을 우회하거나 지하로 건설한 것' 권고사항 반영하여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김포시 일원
 - 지 정 일 : 1975.2.25.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 허가사항 변경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 파주시 연다산동
 -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형식	하저터널	하저터널	-
사업구간	3,970m (문화재구역 1,780m, 1~5구역 1,510m 구역 외 680m)	3,480m (문화재구역 1,840m, 1~5구역 1,500m 구역 외 140m)	감 490m
터널 구간	3,970m	2,860m	감 1,110m
개착구조물	U타입 2개소 635m	U타입 2개소 770m	길이 및 위치변경
	BOX타입 2개소 780m	BOX타입 2개소 120m	
공법	NATM (발파 공법)	쉴드TBM (저소음·저진동 기계굴착)	공법 변경
기타	· 문화재구역 미 침범 · 보호구역(1~5구역)미 침범 · 보호구역(3구역) - 환기구설치(배연·매연시설)	· 문화재구역 미 침범 · 보호구역(5구역) 내 지하차도 (일부구간 복개터널) · 보호구역(1~3구역) 내 시설물 미설치	-
저감방안	· 개착부 가설방음벽 · 조경(복토·성토구간)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 개착부 낮은조명 · 조류충돌방지 방음벽 · 출동방지 유도식재 · 생태습지 등 조경계획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
사업기간	'17.7.27 ~ '23.12.31	'17.7.27 ~ '25.12.31	기간연장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5.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허용기준 1, 2, 3, 5구역)

* 허용기준

구 분	김포시	파주시
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경사지붕)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 이하)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경사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2m(2층 이하)
3구역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경사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2m(2층 이하)	(평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경사지붕)건축물 최고높이 18m(4층 이하)
5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외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기 허가받은 한강통과구간 하저터널 노선 및 발파공법 (NATM)을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자연문화재에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2019.11.18.>

- 본 건은 김포-과주간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건설공사의 기법 변경으로 기 허가 받은 내용에서 일부 설계가 변경된 사항을 심의 받기 위함.
- 본 현상변경에서 고속도로는 당초 교량공사에서 하저 터널 형식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발파공법에서 저소음, 저진동 기계굴착방식으로 변경하여 진동 등에 의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당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3구역 환기구 설치에서 5구역 지하차도로 변경 및 기타 양 출입구 등에 개착부 낮은 조명과 조류 충돌 방지 방음벽설치, 생태습지 등 조경계획과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등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함.
- 따라서 본 건은 교량에서 하저터널 고속도로로 건설하여 한강하구 문화재 구역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 한 것과 1~3구역 내 시설물 설치가 없는 점, 조류 등 이동 철새의 영향을 최소화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그러나 공사 중과 공사 후 사후 환경 관리에도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 2019.11.13.>

- 상기 건은 수도권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또한 시공공법에 있어 교량이 아닌 터널로 시공하여 조류의 비행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소음을 줄이는 공법을 사용하여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라 판단됨.
- 그러나, 상기 지역은 철새의 이동경로 및 먹이 취식지에 해당하므로 기 제시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먹이주기, 무논조성 등의 재두루미 보호대책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공사 전·중·후 먹이주기, 무논조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동기 동안 월별로 실시하여 철새의 이용현황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함.

(2)지자체 의견

<*** / 2019.11.13.>

-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일원~과주시 교하읍을 잇는 하저터널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하였으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하저터널이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문화재구역을 지나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해당하여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 2019.11.12.>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내용 일부 변경으로 신청함.
- 한강하저 최단 터널 통과로 운전자 폐쇄구간 단축 및 선형개선으로 주행안전성 향상 및 완전 밀폐형 슬러리 쉴드TBM공법 적용으로 하저터널 붕괴·침수, 유지관리 리스크 해소를 하였으며, 당초 발파 NATM공법 터널방식에서 저소음·저진동 쉴드 TBM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이전보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장기간 대규모 공사로 공사 중 분기별 모니터링 및 공사완료 후 사후영향 조사를 3년간 실시하여야함
 - 주기적(년 2회) 모니터링 현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조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겨울철 철새도래기간(11월~익년 3월) 중 개착구조물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에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재두루미 등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8명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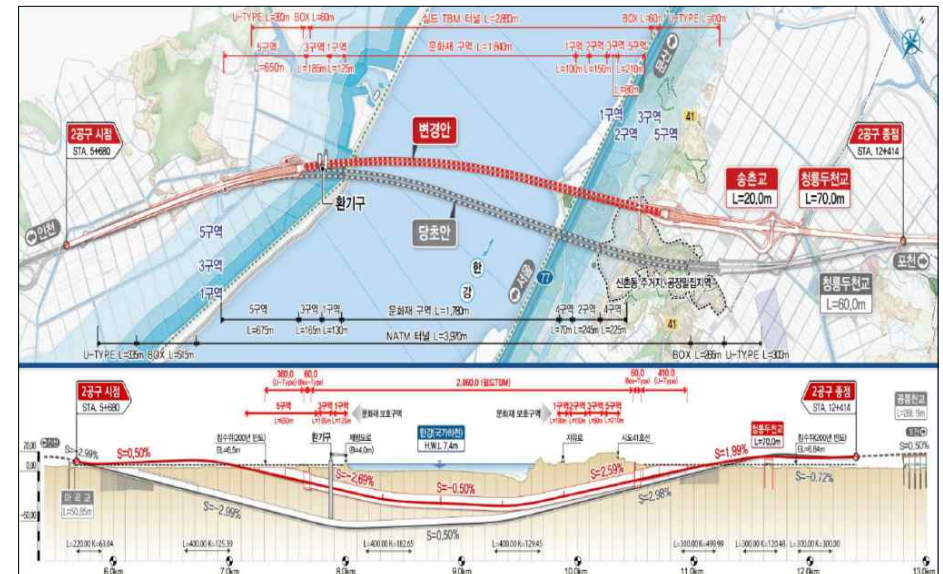
□ 위치도



□ 금회 신청구간(변경(안))



□ 당초 및 변경(안)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 허가
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 허가
사항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07. 4.18.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07년 4차) 심의 조건부가결
* 허가조건: 실시설계 사전승인
 - '10. 4.28.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0년 4차) 심의 가결
* 기간연장
 - '14. 10.29.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4년 10차) 심의 가결
*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간연장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 정 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 허가사항 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사업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당 초	변 경	증 감	
총계	4,476,271	6,365,791.0	1,889,520	100

구분		면 적(㎡)			구성비 (%)
		당 초	변 경	증 감	
주택건설용지	합계	945,877	1,449,275.1	503,398.1	22.8
	단독주택용지	175,722	251,394.6	75,672.6	3.9
	공동주택용지	721,009	1,123,590.1	402,581.1	17.7
	근린생활시설용지	49,146	74,290.4	25,144.4	1.2
상업업무 시설용지	합계	658,983	1,112,081.1	453,098.1	17.5
	상업시설용지	172,954	236,955.3	64,001.3	3.7
	업무시설용지	198,333	553,219.8	354,886.8	8.7
	복합용지	287,696	321,906.0	34,210	5.1
R & D 시설용지		101,958	152,551.1	50,593.1	2.4
공공시설용지	합계	2,769,453	3,651,883.7	882,430.7	57.4
	도로	868,746	1,314,826.0	446,080	20.7
	공원·녹지	1,409,550	1,715,962.4	306,412.4	27.0
	기타시설	491,157	621,095.3	129,938.3	9.8

- 허가기간 변경 : 2007.06.01. ~ 2023.06.30.(당초 2007.06.01. ~ 2019.12.31.)

- 사업기간 : 2007.06.01. ~ 2023.0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5구역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5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을 위해 기 허가받은 토지이용계획사항을 변경(명지지구 2단계 반영)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19.11.18.)

<*** 前 문화재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명지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명지지구 2단계 반영) 및 허가기간 변경을 신청하는 건임.
- 명지지구 2단계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규모는 주택건설용,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R & D 시설용지 등 총 1,889,520㎡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2023.6.30.까지 연장함.
- 토지이용계획은 신규 신청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지역에 대한 변경도 포함되어 있으며, 허용기준 1~5구역과 건물 층수가 아닌 건축높이의 정합성, 근린공원조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신청기관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 지자체(***) 의견(2019.11.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업무신도시 조성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신청한 사항임.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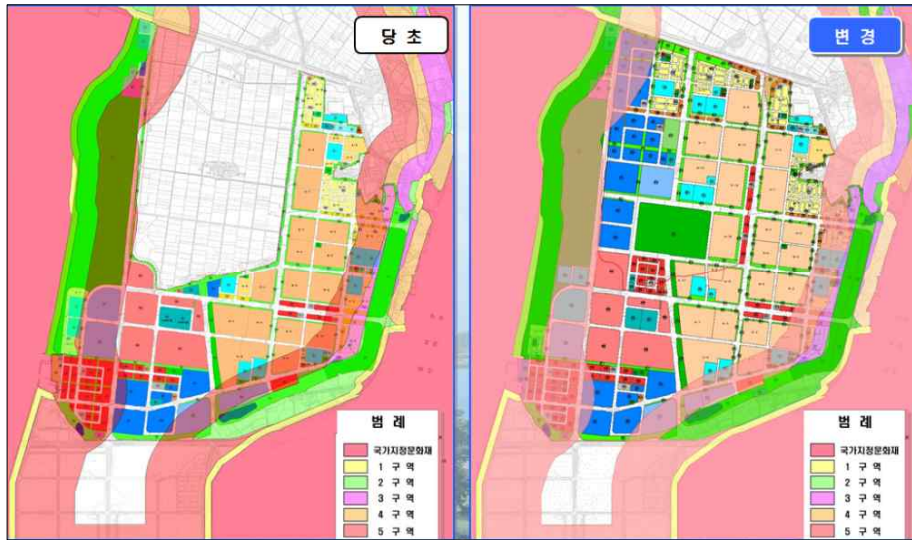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전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8명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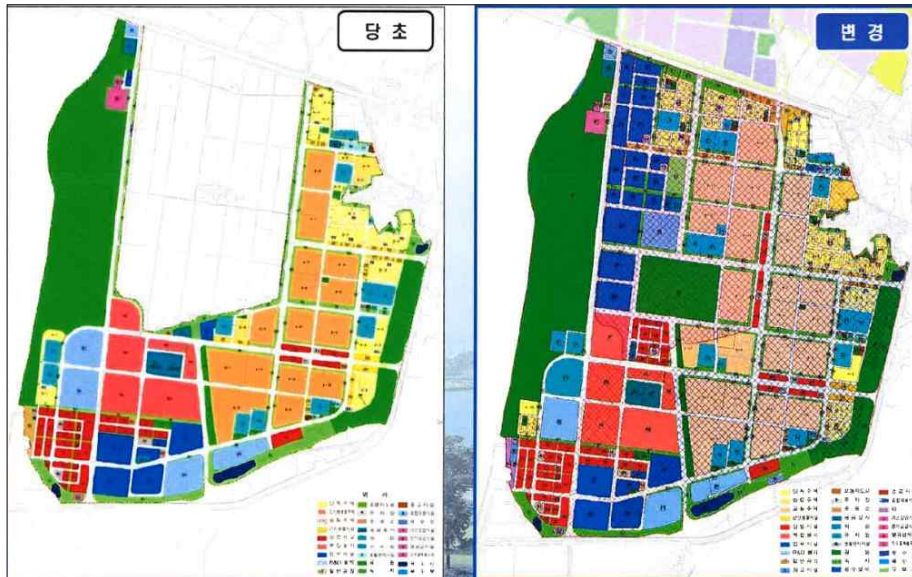
□ 위치도



□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안전번호 천기 2019-11-08

8. 「고창 삼인리 송악」 등 내외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고창 삼인리 송악」 및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내외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삼인리 송악」 및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내외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1967.2.17.)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1991.11.27.)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51 외 49필지
 - 사업내용

구분	문화재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비고
하천정비	83m	2,031m (하폭확장 3~6m)	2,114m
교량신설	-	5개소(1구역 2개소, 2구역 3개소)	
화장실 이설	-	2개소(1구역)	
수목이식	교목류 20주	교목류 123주, 칠죽 350주	
토공	흙쌓기 987㎡	1구역 흙쌓기 1,080㎡, 흙깎기 5,387㎡	6,598㎡
	흙깎기 427㎡	2구역 흙쌓기 1,899㎡, 흙깎기 10,865㎡	17,981㎡
기타	여울 1개소	여울 7개소, 갈대탐방로 데크 L=250m	
	식생비오톱 1개소	식생비오톱 15개소	
	진입계단 2개소	배수시설(통관, 통문) 9개소	
	징검다리 1개소	수변생태관찰원 2개소	

* 「고창 삼인리 송악」 보호구역 내

* 「고창 삼인리 송악」 및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2.4.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허용기준 2구역 :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고창군에서 수립한 2016년 선운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고창 삼인리 송악」 등 내외 선운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지자체(**** *) 의견(2019.11.19.)

- 본 건은 선운천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대부분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해당됨.
- 사업목적과 필요성, 현장실정(하천정비 및 범람대비)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천연기념물인 삼인리 송악, 선운사 동백나무 숲 등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안건번호 천기 2019-11-09

9.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하용머리 매표소 이전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하용머리 매표소 이전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하용머리 매표소 이전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19.10.23.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류
 - * 보류사유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9.11. 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길 24-32(사계리)
 - 지 정 일 : 2011.1.13.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하용머리 매표소 이전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6-7번지
 - 사업내용 : 하용머리 매표소 이전 신축
 - 대지면적 831.00㎡, 건축(연)면적 32.11㎡(17.28㎡)
 - 건물높이 3.3m(1층,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T30 화산석, 노출콘크리트(송판무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매표소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1.4.)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하용머리 매표소가 해안가에 인접하여 해수면 상승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월파 피해를 대비하여 매표소의 위치이전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됨.
- 신축 매표소 위치선정에 있어 첫째, 해수면의 상황과 악용이성 및 공유수면에서 진입하는 탐방객 관리, 둘째, 현재 하멜 상선 전시관 좌측 상업시설(16-6 대), 기후변화홍보관(16-12입)을 찾는 방문객과의 동선분리 및 진입동선(3M 차량동선)확보, 셋째, 용머리 해안 경관의 일체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제안된 신축 매표소의 위치는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됨.
- 향후 지질유산의 가치 제고와 산방산에서 바다로의 통경선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하멜상선 전시관 위치 이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2019.10.4.>

- 기존 매표소를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신축 매표소는 외관과 위치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 지역 지질유산 가치의 완전성 제고와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매표소에 연접해 있는 하멜상선 전시관의 이전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2019.8.16.>

- 태풍으로 인한 월파 피해를 대비해 안전 지대로 매표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됨.
- 다만, 신축 매표소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용머리 해안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여 구조를 단순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하멜 상선 전시관의 규모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머리 해안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매표소를 신축해야 할 것임.

(2) 지자체(*****) 의견(2019.8.19.)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하용머리 매표소가 해안가에 인접하여 있어 해수면 상승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 현재 매표소를 철거하고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신축함으로써 시설물 피해 및 매표소 근무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 위치도



□ 지적도



안건번호 천기 2019-11-10

10. 「영월 한반도 지형」 내 탐방시설 정비

가. 제안사항

「영월 한반도 지형」 내 탐방시설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영월 한반도 지형」 내 탐방시설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2
 - 지 정 일 : 2011.6.10.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한반도지형 내 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2(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전망데크(11m x 5m) 1개소
 - 탐조CCTV(높이3.5m, 태양광 전원) 1기
 - 기존 등산로(300m구간)에 목재계단 10개소(100단)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1.27.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영월 한반도 지형」 내에 탐방시설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지자체(***) 의견(2019.11.8.)

-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은 자연지리적으로 형성된 명승지로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곳이자 한반도습지는 람사르 협약에 따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함.
- 해당 사업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지형 내 기존 등산로 1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여 생태 탐방로를 활용할 계획임.
-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등산로에서 보행이 어려운 경사지에 목재 계단을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상부에는 한반도 습지구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고 전망대 테크에 탐조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임.
- 정비구간이 문화재구역이기는 하나 기존의 등산로로 사용되는 곳을 이용하여 탐방로를 기존 환경을 최소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한반도 지형과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안전번호 천기 2019-11-11

11.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부도전 조성

가. 제안사항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부도전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부도전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송광면 신평리
 - 지 정 일 : 2009.12.9.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송광사 부도전 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4-1(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부도 및 부도탑 각 2기 설치
 - 부지면적 : 364㎡(26m x 14m, 절토 325㎡)
 - 석축 설치 2개소 (길이 25m, 높이1.2m / 0.9m)
 - 수목별채 : 삼나무 27주(B16~40)
 - 부도탑 이전 1기(일각선사, 산사체험관에서 이전), 신설 1기(보성대종사)
 - 사업기간 : 2019.12.1. ~ 2020.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부도전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지자체(***) 의견(2019.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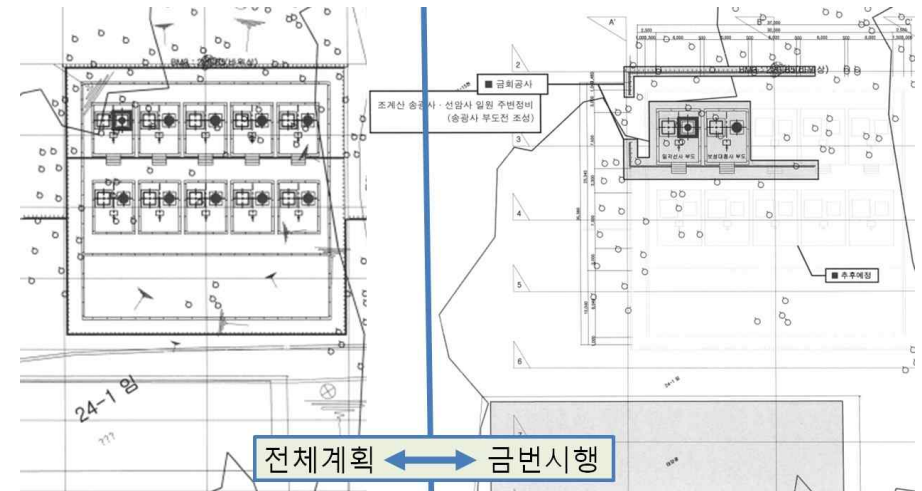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삼보사찰(불보, 법보, 승보) 중 하나인 승보사찰로서 유명한 송광사는 신라 말 '체징'이 길상사라는 소규모 절을 지은 것에서 비롯되어,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대찰로 증건된 후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 16명의 국사가 배출된 곳이다. 감로암은 제6세 원감국사(圓鑑)가 창건하였으며, 현재까지 송광사의 수행도량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음
- 현재 송광사 내 부도전은 울원 일원에 조성된 곳이 한 곳밖에 없어 새로이 입적하는 스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성보박물관 후면 유희지 일원에 '일각선사 부도이전 1기' 및 '보성대종사 부도설치 1기'를 추진하며 신규 부도전을 조성하고 승보사찰의 명맥을 잇고 송광사의 전통문화유산 관리 및 시설물 보호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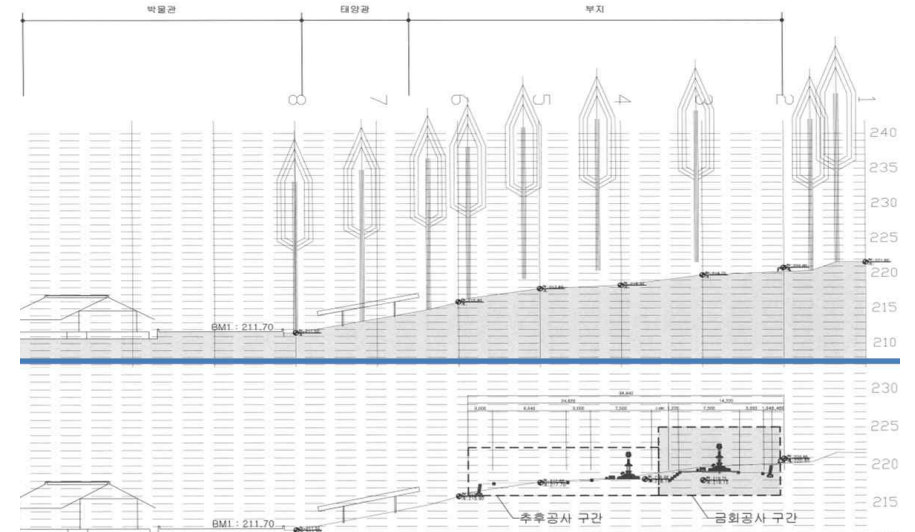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5명, 조건부가결 2명

※ 참고자료

<전체 사업계획 및 근변 신청 구간>



<중단면도로 본 사업구분>



※ 부도전 전체의 사업 시기는 미정으로, 향후 신청예정
· 부도전 1,365㎡(39m x 35m) 및 부도·탑 10기 설치

【검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11-12

12.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
 - 한문 : 扶安 蓬萊谷 直沼瀑布 一圓
 - 영문 :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in Bongraegog, Buan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기준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 등
-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0
- 지정가치
 -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로, 폭포와 주변은 변산옹회암지대와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이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보존가치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지켜지고 있음.
 - 직소폭포와 구곡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강세황의 우금암도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의 시·서·화가 남아있고, 관련 전설과 전승, 암각서 등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음
- 문화재구역 : 2필지 96,744㎡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명칭 : 부안 직소폭포 일원
 - * 한문 : 扶安 直沼瀑布 一圓
 - * 영문 :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2) 문화재 현황

○ 입지 및 지질현황

- 직소폭포가 위치하는 변산반도 일대의 거시적 지질구조는 화강암이 심층 풍화되어 형성된 동부의 구릉지 및 제4기 충적층 저지, 중앙의 거대한 백악기 안산암류인 화산암 복합체, 서쪽 해안에 발달한 경상계 퇴적암으로 분류된다.
- 그 가운데 봉래구곡은 중생대 백악기에 폭발하여 형성된 안산암류 화산암체에 위치한다. 부안일대 백악기 화산암체는 부안화산암에 해당하는데, 아래에서부터 천마산옹회암, 연동옹회암, 우동제옹회암, 석포옹회암, 격포리층, 곰소유문암, 유정제옹회암, 변산옹회암, 삼예봉유문암으로 구분된다. 부안화산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변산옹회암인데, 직소폭포 일원도 변산옹회암지대에 위치한다
- 폭포 주변에는 고온의 화산쇄설물이 정치된 후, 냉각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축소하여 형성된 다각형 기둥모양의 주상절리가 잘 발달하는데, 주상절리의 일부가 기계적 풍화작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주상절리 전석도 관찰된다.

○ 식생구성과 특징

- 직소폭포가 있는 선인봉 동사면 일대에는 낙엽활엽수와 수나무가 혼재하는 우리나라 중부의 전형적인 이차림이다. 주요 수종으로는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쇠물푸레, 당단풍, 팔배나무, 매죽나무, 서어나무, 굴피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 복자기,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산딸나무, 가막살나무, 소나무 등이 층층과 상층을 이룬다.
- 하층에는 생강나무, 개암나무, 검노린재, 고추나무, 광대사리, 털초록싸리, 피불나무, 국수나무, 작살나무, 조릿대, 병꽃나무, 산초나무, 오갈피나무, 질달래, 참싸리, 철쭉꽃,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누리장나무 등이 분포한다
- 계곡과 직소천의 주변은 천연기념물 제124호 「부안 중계리 팽팽나무 군락」, 제370호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등 보존가치 높은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다.

○ 역사문화와 경관

- 산과 바다가 닿아 있는 부안의 변산은 『정감록(鄭鑑錄)』에서 제시한 경관이 아름다운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한 곳이며, 일찍부터 대한팔경(大韓八景)의 하나로 꼽혀왔다.
- 예부터 “직소폭포와 중계계곡의 선경을 보지 않고는 변산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으며, 노령산맥을 등지고 호남평야를 가로 질러 서해로 돌출한 변산반도 중앙에 있는 내변산(內邊山)에는 직소폭포, 월명암, 실상사지 등이 있고 멀리 않은 곳에 내소사와 적벽강 등이 펼쳐져있다.
- 변산반도와 봉래구곡의 중심에 위치한 직소폭포는 채석강과 함께 변산을 대표하는 변산팔경 중에서 으뜸인 일경(一景)이다. 폭포 아래에는 실상용추(實相龍湫)라는 소(沼)가 있고 하류 쪽으로 분옥담, 선녀탕을 형성하고 있다.
- 봉래구곡(蓬萊九曲)은 망포대·신선대(신선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백천과 합류하여 잠두마을의 암지에 이르는 약 20km의 직소천에 설정되어 있으나, 구곡시(九曲詩) 등이 전하지 않아 전체가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 봉래구곡은 일반적인 오름식과 달리 상부에 1곡이 설정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9곡이 설정된 내림식 구곡이다. 현재 6·7·8·9곡은 부안담에 수몰되어 있다.

구분	명칭	내용
제1곡	대소 (大沼, 大蘇, 구시둑병)	대소폭포와 대소래사를 가리킴 (대소래사 : 소소래사와 함께 내소사의 유래가 된 사찰)
제2곡	직소폭포 (直沼瀑布)	폭포와 소(沼)로 구성되며 가뭄이 심할 때면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변산 최고의 승경으로, 시인 신석정(1907~1974)이 이 곳을 이매창(1573~1610), 유희경(1545~1636)과 함께 부안삼절(扶安三節)로 표현
제3곡	분옥담 (噴玉潭)	화산 분화구 모양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구슬같은 물이 떨어지는 못
제4곡	선녀탕 (仙女湯)	휘영청 밝은 달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고 간다는 못
제5곡	봉래곡 (蓬萊曲)	봉래산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이 구곡에서 가장 아름답고 며 ‘봉래구곡’ 각자(刻字)가 있다. 동초 김석곤의 글로 알려짐.(양녕대군의 글자라고도 함) ○ 각자의 규격은 길이 5m, 너비 1.7m에 초서체 ○ 김석곤(1874~1948)은 정읍과 부안 등의 이름난 산에 초서와 예서로 많은 각자를 남긴 문인

제6곡	영지(影池)	월명암의 그림자가 비치는 못
제7곡	금강소 (金剛沼)	금으로 만든 비석을 빠트려 이름붙은 소(沼)
제8곡	백천(百川)	100 개의 봉우리에서 생겨난 100개의 개울이 모이는 곳
제9곡	암지(暗池)	잠두마을(누에가 머리를 든 형상) 앞의 못이다. 근처에 천연기념물 팡팡나무 군락지가 있으며, 지장봉, 쇠뿔봉, 비룡상천봉, 어수대, 우슬재로 이어지는 능선 시작점

○ 연혁·유래

- 『동국여지승람』에 변산(邊山)을 영주산(瀛洲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도교의 영향으로 봉래산(蓬萊山)이라 부르며 고창의 방장산(方丈山), 고부의 두승산(斗升山)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三神山)으로 꼽고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능가산(楞伽山)이라고도 한다.
- 많은 시객과 문객들이 유람처로 방문하여 직소폭포를 소재로 많은 글과 그림을 남으며, 특히 표암 강세황의 「우금암도」를 비롯하여, 동초 김석곤의 작품으로 알려진 봉래구곡 암각서, 김시습, 기준, 신경준, 이기 등의 작품이 잘 알려져 있다.
- 가뭄이 심할 때 현감이 용소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구전과 용이 살았다하여 龍湫라고 불린 전설 등이 용추, 분옥담, 선녀탕 등에 잘 남아 있다.
- 관련 기록

내용	출처(작자, 책이름, 제목)
직소폭포 시	송병선 「연재집」 권21 邊山記 … 곧바로 직소에 닿았다. 바위 등허리가 움푹 패여 있고 커다란 바위가 가로 누워 있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깎아지른 듯했으며, 전체가 연못이었다. 위에 있는 소는 흘러 내리는 계곡물을 받아 벽을 뚫고 뿜어냈다. 그것을 헤아려보니 높이가 가시 수십 길이었으며, 그 소리는 우레가 울리는 것 같았다. 물거품을 날려 얹게 뿜어내어 옷과 두건을 적셨다. 아래의 소는 크기가 마치 네모난 못 같았는데, 검푸르고 깊었다. 따라온 자들이 모두 기이한 장관이라고 소리쳤다. 내가 홀로 말을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이 어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구룡폭포나 박연폭포와 비교해보니 하해와 구덩이물의 차이라 하겠다… 강세황 「표암고」 권4 遊禹金巖記 이황 「퇴계선생문집」 별집 直淵瀑布 韻

	白練橫飛翠障圍 흰 명주가 가로 날려 푸른 장벽을 둘렀고 劈開山骨減雲肥 산 바위 쪼개져 구름 살찌는 것 덜었구나 漲時河落深春地 넘칠 땐 은하수가 깊은 학으로 떨어진 듯 急處雷奔下激磯 빠른 곳은 번개같이 물가 돌을 내려치네 何許靈源連海窟 어디쯤에서 靈源이 바다 굴로 연했을까? 幾多餘沫散林霏 수두룩한 남은 거품 林으로 흩어진다 雄觀未遂鱸峯勝 웅장한 향로봉의 승경을 아직 구경 못 했으나 且向茲山欲拂衣 또 이 산을 향해 옷소매를 털고 싶어라 (칠계 김언거(1503~1584) 선생이 보낸 시에 대해 같은 운 자를 사용해 이항 선생이 답시로 지은 글로 추정)
직소폭포 그림	강세황 「우금암도」 龍湫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여지도」 부안현
내소사(來蘇寺), 소래사(蘇來寺) 기록에 폭포와 소 등을 묘사함	김시습 「매월당집」 권1 來蘇寺 기준 「덕양유고」 권1 來蘇寺 임방 「수촌집」 권4 與巡相韓公汝允 遊邊山. 次來蘇寺示同 遊諸公韻 차좌일 「사명자시집」 與扶安古阜二使君. 遊邊山來蘇寺 박윤목 「존재집」 권4 來蘇寺 남병철 「규재유고」 권2 早發來蘇寺, 夜微雨 김진상 「퇴어당유고」 권3 曉向格浦
	신경준 「여암유고」 권4 卞山來蘇寺記 이기 「이해학유서」 권1 紀遊 강세황 「표암고」 권4 遊禹金巖記 송병선 「연재집」 권21 邊山記
	정지상 「동문선」 권12 題邊山蘇來寺 기준 「덕양유고」 권1 蘇來寺 김제민 「오봉집」 권1 題來蘇寺, 蘇來寺(夜雨聞鹿鳴, 題熙長 老壁上), 來蘇寺(見辛白麓效 鄭知常體. 因用, 其體, 以 贈 德熙長老) 박미 「분서집」 권5 遊邊山. 從蘇來寺下. 宿元曉菴 권시 「탄옹집」 권1 蘇來寺贈邊聖微
	신경준 「여암유고」 권4 卞山來蘇寺記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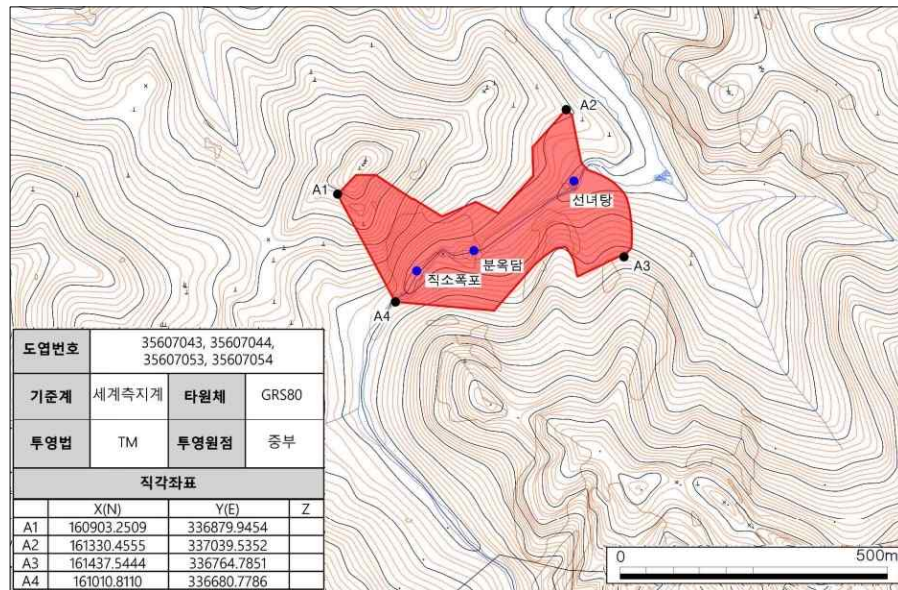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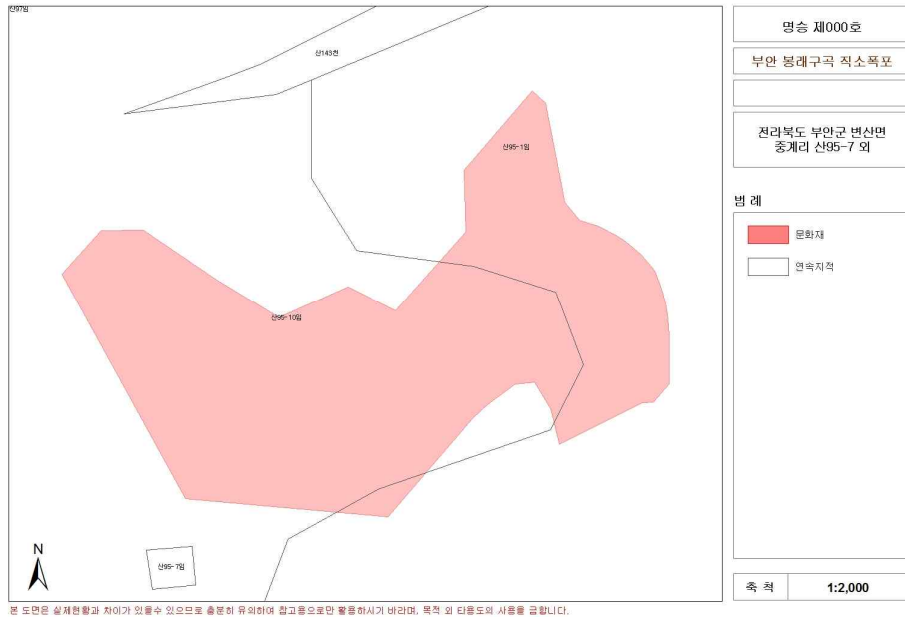
-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다.
- 직소폭포와 주변은 변산옹회암지대와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이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보존가치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지켜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 직소폭포와 구곡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강세황의 우금암도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의 시·서·화가 남아있고, 관련 전설과 전승, 암각서 등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 근거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곳·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대(臺), 바위, 동굴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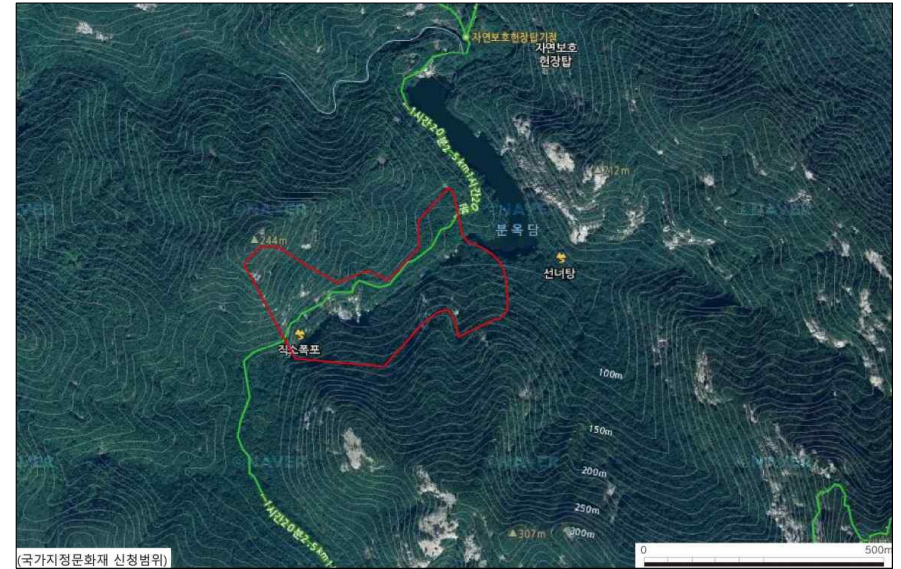
- 2필지, 96,74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전라북도 부안군	산95-1	산	954,050	26,453	국(***)
변산면 중계리	산95-10	산	5,798,280	70,291	국(***)
계	2필지		6,752,330	96,744	

○ 지정구역(안)도



<지정구역 GPS좌표를 중첩한 등고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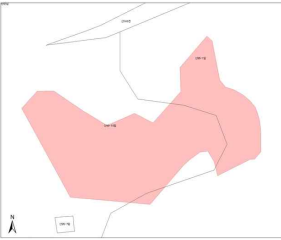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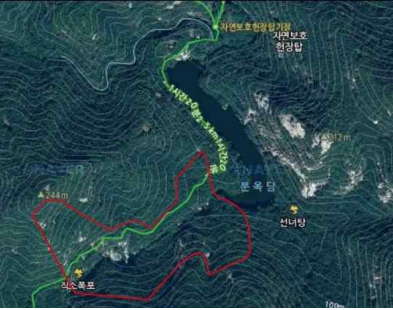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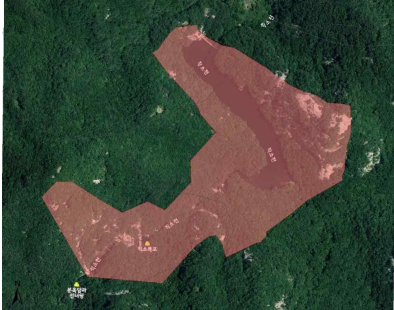


<위성도에 중첩한 지정구역 위치>

마. 검토의견(*****)

- 변산팔경의 으뜸인 직소폭포 일원은 화산암 지역을 흐르는 직소천의 침식 지형이 주변 식생과 어울려져 지형·경관적 가치가 탁월하며, 봉래구곡을 이름 짓고 즐거운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음.
- 직소폭포는 상류부터 1곡이 경영되는 독특한 구조의 봉래구곡에서 제2곡으로서, 높은 위치에서 시원스레 쏟아지는 물줄기가 매우 장쾌하며, 이곳을 소재로 한 시문(詩文)이 여러 문집*으로 남아있음.
 - * 송병선 『연재집』, 강세황 『표암고』, 신경준 『여암유고』
 - 강세황의 「우금암도」 그림과 곳곳의 각자(刻字)를 통해서도 직소폭포와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 직소폭포 일원이 많은 이들의 유람처로 명성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지정구역과 관련하여, 신청한대로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조사자 3인이 제안한 봉래곡(5곡)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조사자 모두 봉래곡의 경관적 가치와 구곡의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봉래곡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4곡과 5곡 사이의 직소보의 경우 현대시대(1996년도) 건설된 시설물이며, 이러한 현대적 시설을 명승 구역 안에 포함하여 지정할 선례는 없음.

※ 1안과 2안 비교·대조

구분	1안(신청안)			2안(지정조사 3인 의견)		
범위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면적	2필지 96,744㎡(국유)			3필지 205,731㎡(국유)		
	지번	지목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정면적(㎡)
	산95-1	산	26,453	산95-1	산	115,560
	산95-10	산	70,291	산95-10	산	80,700
구역도						
						

- 명칭은 ‘부안 봉래구곡’이 명승의 역사·경관·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나, 구곡의 전체를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직소폭포(2곡)와 주변을 위주로 한 ‘부안 직소폭포 일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음. 전라북도과 부안군이 신청한 ‘부안 봉래곡(蓬萊谷) 직소폭포 일원’은 봉래계곡을 뜻하는 곡(谷)이 5번째 곡(曲)인 봉래곡(蓬萊曲)과 혼동의 여지가 있음.

바.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1.11.)

<*** 문화재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직소폭포는 변산팔경의 하나로, 변산반도 내변산의 직소천 상류에 위치하며, 주요 역사문화환경 으로는 내소사, 실상사지, 월명암, 청련암, 낙조대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직소폭포와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의 경관요소를 포함하는 직소폭포 일원은 예로부터 문인(文人)들의 유람처로 명성이 높았으며, 직소폭포 일원을 소재로 한 시문(詩文)을 담은 문집으로는 송병선 『연재집』, 강세황 『표암고』, 신경준 『여암유고』 등이, 그림으로는 강세황의 「우금암도」가 있음.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화산암봉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변의 침식지형과 주변 식생이 어울려서 경관이 수려하며,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봉래구곡(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을 경영·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곳으로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근거기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부안 직소폭포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원(지형, 지질, 식물, 경관, 역사적 사실 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직소폭포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변산응회암 지대에 위치하며, 주상절리와 주상절리의 풍화작용을 관찰,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직소천변의 침식지형과 주변 식생과 어울려서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직소폭포와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은 봉래구곡으로 불리우며,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환경적 가치가 뛰어나.
- 경관
 - 내변산의 주요 경관요소인 직소폭포는 신선대, 분초대, 망포대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옥녀봉, 덕성봉을 합하고, 남으로 선인봉, 쌍선봉 등으로 위요되어 흐르는 물줄기가 30m 암벽단애(岩壁斷崖)로 낙수하여 둥근 소(沼)를 이루고, 용추(龍湫), 분옥담(噴玉潭), 선녀탕(仙女湯), 봉래곡(蓬萊曲) 등으로 흘러가면서, 포트홀(Pot hole) 등의 하천환경을 형성하고, 주변의 기암절벽과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식생군락지와 어울려 빼어난 경관을 형성함.
- 원형 보존성

- 직소폭포,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의 경관요소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직소폭포 일원은 주변의 산세와 기암절벽, 계류 등과 어울려 빼어난 자연 경관을 형성하며, 역사와 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景勝地)로서, 특히 폭포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타 명승과 차별됨.
- 종합의견
 - 부안 직소폭포 일원은 조선시대부터 변산팔경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화산 암봉 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변의 침식지형과 주변 식생과 어울려서 경관적 가치가 탁월하며,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봉래구곡(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을 경영·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장소로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지정구역의 경우 직소폭포,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월명암, 낙조대 일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부안 봉래구곡은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흐르는 계곡 일대임.
 - 직소폭포
 - 직소폭포는 채석강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변산팔경에 하나로 포함되어 음.
 - 높이 약30m인 직소폭포는 봉래구곡 제2곡. 바로 아래 용추, 분옥담(제3곡), 선녀탕(제4곡) 등이 연결되어 있고 9곡의 주요 조망점을 형성함.
 - 나머지 봉래구곡(蓬萊九曲)
 - 망포대에서 발원한 직소천을 따라 직소폭포(2곡) 바로아래 분옥담(3곡), 그아래 선녀탕(4곡) 등이 연속하고 5곡-9곡은 댐 건설로 소가 호수를 이루고 수몰되어 있음(2019, 11.11 현장조사).
 - 봉래구곡을 따라 졸참나무, 굴피나무, 고추나무, 산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어우러진 산림경관이 관찰됨.
- 연혁·유래 및 특징
 - 변산을 대표하는 봉래계곡은 신선대 신선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망포대, 분초대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해발 약 150미터에 위치한 산곡의 분지마을 대소(大蕭)에서 만나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등의 빼어난 경관을 연출하며 ‘봉래구곡(蓬萊九曲)’을 이루고 있음(부안군, 2019, p15).
 - 김시습 매월당집, 신경준의 여암유고, 송병선 연재집, 김제민 오봉집 등 수많은 조선시대의 시, 서, 화에 직소폭포가 주요 제재로 등장함(부안군,

2019, p16).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경관 및 소셜 네이처(social nature)로서의 현재가치
 - 폭포 주변은 고온의 변성 화산암에 형성된 주상절리가 발달, 육각 기둥형태로 발달한 형태가 뚜렷이 관찰됨.
 - 무엇보다 변산팔경이었던 직소폭포 일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탐승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던 최남선도 신춘순례(尋春巡禮, 1925)의 답사기를 통해 감탄해 마지않은 아름다운 절경지로서 수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었음.
 - 이러한 작품들은 현재에도 남아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과거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관념과 경탄을 공유하고 있는 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장소성, 심미성
 - 직소폭포 일대는 과거에 신성한 장소(holy place)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일제시대 부안군지(1932)에 보면, 직소(直沼)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고 전해지며 또 <한국지명총람>에는 “가물면 원님이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는데 물속에 산 돼지를 잡아넣는다”는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음.
 - 동초 김석곤의 ‘봉래구곡’ 암각서와 고병두의 필적인 소금강이란 암각자가 발견되어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많은 각서들이 분포하므로 정확한 연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정 대상 및 범위
 - 직소폭포(2곡)~제4곡인 선녀탕까지가 부안군에서 신청한 명승 지정범위임.
 - 5곡까지 확대 지정을 검토함이 타당함
 - 신청범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보고서(명승지정신청서, 자문의견서, <고서화고문헌에 나타난 명승자원발굴조사(2013)>) 등에서는 주로 ‘직소폭포’에 초점을 두어 조망적 경관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봉래구곡의 성격과 범위, 제5곡에서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경관의 아름다움, 진입로에서부터 관찰되는 유수와 수변, 오솔길, 식생, 지형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4계절을 반영하는 시각적, 심미적 경험을 고려할 때,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현재의 신청범위와 연계하여 확대 지정,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기존 변산국립공원 지정 범위 내에 위치하여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이외에 별다른 이슈는 현재 알 수 없음.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6, 7, 8, 9곡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명승 탐방로를 정비하면서 과거(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 의미 있는 옛길이 있었는지 파악하여 보고, 결과에 따라 향후에 보존, 활용방식에 대해 모색.
- 문화재 가치
 - 대상지(직소폭포 일원)는 비단 폭포만이 아니라 지형적, 역사지리적, 가치가 다양한 기록과 관련 연구성과물들에 의해 뚜렷이 확인됨. 무엇보다 육안으로 관찰되는 심미적 경관의 모습이 빼어나며 과거 사람들에게도 이 경관은 탁월하게 인식되어 탁월한 문화경관으로서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대상지의 자연 및 생태적 가치가 공식화 되어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생태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이에 헤리티지로서 문화, 역사적 가치를 복합화하여 보존책을 마련하고 후대에 전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경관
 -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직소폭포와 봉래구곡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당대 최고의 문인과 화가 들이 이 곳의 아름다움을 각별히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긴 특별한 장소임.
 - 따라서 현대인에게 그리고 미래에도 그 아름다움이 지속, 공유 가능한 ‘문화경관 및 소셜 네이처’로서의 장소성과 가치가 충분함.
- 원형보존성
 - 현장조사시 답사한 제2곡 직소폭포 제4곡 선녀탕은 큰 훼손없이 원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보의 건설로 인해 원형경관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되는 5곡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에 건조된 구조물이며, 이후 호소를 이루어 2차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는데 이 또한 주변과 어우러진 심미적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보 또한 기존에 수 경관에 추가된 당시의 인문경관으로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으므로(명승지에 세워진 과거의 교각과 누, 정 들이 오늘날에는 역사경관으로 파악되곤 같이), 명승의 지정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주변과의 연계성과 심미적 아름다움, 역사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차별성
 - 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폭포들과 달리 ‘구곡’에 포함되는 직소폭포 일원은 점적 경관이 아닌, 선형 연계경관임.
 - 또한 기존의 폭포들이 주로 지질/자연명승으로 접근된 것과 달리 다양한 식생경관과 함께 인문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특성이 복합된 경관으로서

큰 차별성을 지님.

○ 종합의견

- 지정가치에 관하여
 - 보편적으로 공유될만한 뛰어난 시각적 아름다움, 역사적인 장소성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록과 예술작품, 주변 식생환경의 우수성 및 지형적 특수성 등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확인됨.
- 명칭에 관하여
 - 이와 관련하여 그 명칭을 “부안 봉래구곡 직소폭포 일원”이라는 명칭은 ‘폭포’보다 강조되어 기존의 지형경관을 연상케 하므로, 조정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함.
 - 가령 “부안 직소폭포와 봉래구곡”은 ‘구곡’이 ‘폭포’와 대등하게 읽혀져 단일한 폭포경관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을 포괄하고 있음을 명칭으로 표현함.
- 지정범위에 관하여
 - 위에 언급하였듯이 신청지(2곡~4곡)와 연계된 주변으로(5곡 포함) 확대한 범위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화양구곡(명승제110호)을 제외하고 명승으로 지정된 구곡이 현재 없음).

<*** 전.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지형지질학적 가치
 - 직소폭포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변산응회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주상절리의 기계적 풍화작용뿐만 아니라 그루부, 포트홀 등을 관찰·학습할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또한,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질 안산암의 잔류지형으로 500m 이하의 화산암봉들 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이 만든 하천 침식경관이 매우 다채롭게 펼쳐진다.
- 조망경관적 가치
 - 30m 내외의 낙차를 가진 직소폭포는 봉래구곡의 제2곡으로, 하류에는 제3곡 분옥담, 제4곡 선녀탕이 밀착된 연계경관이다. 주변 계곡부에는 굴피나무·개서어나무·줄참나무·층층나무군락이 우점을 이루며 이외 굴참나무·산벚나무 그리고 합다리나무군집 등 7개 자연 식물군집으로 분류되는 등 자연성이 매우 높은 산림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 인문환경적 가치
 - 직소폭포 일대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연재집』에 실린 「변산기」 등 유산기(遊山記)에 소개되고 있듯이 조선시대 수많은 시객과 문객들의 유람처로 문학작품의 무대로 다수 언급되고 있다.
 - 미국 LA 카운티미술관 소장 표암 강세황의 화첩 ‘우금암도(禹金巖圖)’에는

직소폭포의 실경을 묘사한 용추(龍湫)가 전하고 있다. 또한 동초 김석곤의 ‘봉래구곡’ 암각서와 고병두의 필적인 소금강이란 암각자도 발견된다. 또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유서(儒袖)’라는 암각서도 존재하는데 이 암각서는 <전주이씨족보>에 전해지는 “실상사에서 효령대군이 잠시 기거했을 때 효령대군을 보러온 양령대군이 봉래곡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위에 새겼다”고 한 그것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 김시습, 기준, 신경준, 이기 등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1925년 육당 최남선의 『신춘순례(尋春巡禮)』 등 당대 학자들의 문학작품에서 직소폭포 일원은 ‘실상용추(實相龍湫)’란 명칭으로 매우 생동적이고 감동적으로 회자되어 왔다.
- 1932년에 간행된 부안군지 『부풍승람(扶風勝覽)』에 의하면 직소(直沼)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고 전해진다. 또 『한국지명총람』 전라북도 부안군 편에는 “가물면 원님이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는데 물속에 산 돼지를 잡아 넣는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직소폭포 일대는 기우제를 지내는 성소(聖所)였음이 확인된다.
- 지정대상 및 범위
 - 현재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2·3·4곡을 명승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구곡의 성격과 5곡의 경관적 탁월성 그리고 주변 경관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다면 현존하는 1~5곡을 연계하여 지정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 보존영향 행위기준(안)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은 국립공원과 중복지정 되므로 해당사항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향후 관리주체의 역할분담과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제 문제에 대한 공조가 요망된다.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970년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직소보는 원칙적으로 파쇄하여 자연적인 수계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나 중계보로 인한 담수호 자체가 자연호수인양 역량성 있는 탐방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문화재 가치
 - 직소폭포 일원은 자연경관이 탁월한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 자연식생학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직소폭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 1곡에서 2곡 직소폭포를 거쳐 4곡까지의 경관은 밀도 있게 연계되어 있어 ‘장(場)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점(點) 문화재로서의 속성도 함께하고 있다.
 - 제5곡에 새겨진 동초 김석곤의 초서체 대자(大字)인 ‘蓬萊九曲’ 암각서는

그 크기나 서예적 기법에서도 주목 받기에 충분하다.

- 경관
 - 구곡경관의 일부로서 경관성과 연계경관으로서의 조망적 가치가 탁월할 뿐 아니라 계곡의 산림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직소폭포 그 자체는 초점경관으로서의 상대적 유목성이 매우 크다. 직소폭포 주변뿐만 아니라 그 아래 형성된 분옥담과 선녀탕 주변에는 폭호와 그루브, 포트홀 그리고 주상절리의 일부가 풍화되어 떨어진 전석이 흩어진 것도 매우 특이한 경관이자 경관현상을 자아낸다.
- 원형 보존성
 - 제2곡 직소폭포에서 제5곡 봉래곡까지는 원형경관적 특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탐방을 통한 자연경관적 가치 외에 문화재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자연경관적 가치 외에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직소폭포가 가진 가치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명승의 보존 못지않게 활용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 차별성
 - 대상지역은 복합산림문화유산 또는 지질관광자원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음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사계절 탐방객이 끊이지 않아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폭포를 포함한 구곡경관명승이란 측면과 부안군청 뒤편의 옛 감영터에 새겨진 봉래동천(蓬萊洞天) 암각서 등에서 표출되는 ‘蓬萊’ 즉 ‘신선경(神仙景)’으로서 부인 모티브를 견인할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 종합의견
 - 직소폭포는 봉래구곡의 제2곡일뿐 아니라 변산팔경의 제1경으로 회자되는 변산의 제일경이라 할만하다. 직소폭포의 명승적 가치는 500m 이하의 화산암봉들 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이 만든 하천 침식경관과 주변 자연식생이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의 시문과 그림 그리고 석각(石刻) 등에 의해 그 가치와 향유 문화가 전승되어 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용자관리에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 국내에서 명승 제110호인 화양구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명승으로 지정된 구곡이 없음을 볼 때 비록 하류의 구곡은 수몰되었지만, 직소천과 봉래계곡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 내변산의 대표적 승경으로서의 봉래구곡의 진면목을 국가가 인정해 준은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 판단된다.
 - 이에 직소폭포 일원을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여, 부안군이 주도하여 문화재의 통합적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향유가치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2)지자체(***) 의견(2019.8.8.)

- 부안 봉래구곡 직소폭포 일원은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변산반도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변산팔경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직소폭포와 관련된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습니다.
- 직소폭포 일원의 자연유산으로는 직소폭포, 용추, 분옥담, 선녀탕 등이 있습니다. 직소폭포는 변산반도의 내변산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로 높이가 약 30m에 이릅니다. 또한 직소폭포 직하에 있는 沼는 용이 살고 있다하여 龍湫라 부르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분옥담은 직소폭포와 용추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고인 소이며,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녀탕은 분옥담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다시 고인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은 경관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직소폭포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변산응회암으로 구성되고 주변에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직소폭포는 고온의 화산쇄설물이 정치된 후, 이들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축소하여 형성된 다각형 기둥모양의 주상절리 형성작용에 대해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소폭포 주변의 주상절리 전석은 지표에 노출된 주상절리 내 절리면이 쉽게 풍화되고 침식되어 모암체가 파쇄되고 분리되는 기계적 풍화작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연경관과 지질경관이 뛰어난 직소폭포는 과거부터 많은 명사들이 찾아와 다양한 문학작품을 남기는 등 인문학적인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수많은 문학작품이 있지만, 특히 시·서·화 삼절로 불렸고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충수'로서 중추적인 구실을 했던 표암 강세황이 직소폭포에 들러 이곳 지역을 그린 「우금암도」와 동초 김석곤이 썼다고 전해지는 봉래구곡 암각서는 조선시대 직소폭포의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 이렇듯 직소폭포 일원의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 인문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 참고사항

(1) 조사용역 보고서 관계전문가 의견

(***·***·*** 위원 / 2013.9.27. 자원조사 용역)

- 직소폭포는 변산팔경의 하나로 내변산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30m의 폭포이며, 직소천의 계곡을 따라 명명된 봉래구곡의 하나에 속하기도 하는 경승지이다. 폭포 아래에는 용이 살았다고 하는 깊고 푸른 용소가 위치하고 있다.
- 직소폭포는 내소사의 북서쪽, 선인봉의 동쪽 산자락에 형성된 계류폭포이다. 폭포는 높이 20m 이상을 비류하여 옥수담에 떨어지는데 그 밑에 제2, 제3의 폭포가 있다.
- 1770년경 강세황이 이곳 지역을 그린 우금암도가 전해지고 있다.
- 현지인들은 직소폭포와 그 일대를 내변산의 제일 경승으로 치기도 하고 변산팔경의 하나로도 꼽는다.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흐르는 계곡 일대를 봉래구곡(蓬萊九谷)이라 한다.
- 변산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의 진정성에 입각하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직소폭포 일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게 하려면 국가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구곡의 유래 등을 보완, 지정구역 확대여부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보류 7명

13. 「상주 두곡리 뽕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상주 두곡리 뽕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상주 두곡리 뽕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08.10.24. 주요 수종별 우수 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 '09.01.23.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보고
 - '17~'18년 우수(잠재)자원 발굴조사(***** *****)
 - '19.03.25. 2019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9.11.05.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상주 두곡리 뽕나무 (尙州 豆谷里 뽕나무)
Mulberry at Dugok-ri, Sangju
* 경상북도기념물 제1호('72.12.29.지정)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외
 - 지정가치
 -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뽕나무로서 보기 드문 노거수로서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양의 오디가 열릴 정도로 수세도 양호하고,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주 지역이 양잠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 문화재지정구역 : 7필지 2,585㎡
 - 관리단체 : 경상북도 상주시
 - 주요현황
 - 수종 : 뽕나무

- 수령 : 300년 이상(추정)
- 규모 : 1주

수고(m)	흉고둘레(m)	수관폭(m)
10	3.93	동-서 12.7 / 남-북 16.2

라. 검토의견(*****)

-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상주 지역에 양잠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매년 많은 오디가 열릴 정도로 수세도 양호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창덕궁 뽕나무와 비교해도 크기와 모양, 생육상태 등이 양호하므로 천연기념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뽕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총 1건)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2006.4.6. 지정)
규모	1주, 400년(추정), 나무높이 12m, 흉고둘레 2.39m
연혁 및 유래	양잠을 장려하는 태종의 공상제도(公桑制度)에 의해서 궁궐 내에 뽕나무를 심어 왕비가 양잠을 직접 시연하는 친잠례를 행하고 잠단에 제사를 지냈다는 『태종실록』(태종 9년 3월)의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궁궐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노거수임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전문위원, *** 前문화재위원, *** 상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지조사 / 2019.11.5.)

○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상주 두곡리 뽕나무(尙州 豆谷里 뽕나무)
 - Mulberry at Dugok-ri, Sangju

○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은척면은 상주시 서북단 22km지점에 위치하며 외서·공검·이안면, 문경시 농암면과 경계를 이룬다. 지형은 백두대간 속리산 지맥의 남산, 칠봉산, 작약산 등이 있으며 임야면적이 76%에 달함.
- 마을회관 맞은편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75호인 은행나무 노거수가 있으며, 남측으로 약 3.6km 떨어져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120호인 동학교당이 있음.
- 두곡2리(떠실마을) 마을회관에서 서쪽 운현소류지 방향으로 약 150m

이동하면 주거지 끝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농경지임.

- 연혁·유래 및 특징

- 상주는 삼백(三白)의 하나인 양잠(養蠶)의 고장으로서 1397년 진사 김직지(金直之)의 『육익정기(六益亭記)』에 이미 고려 말 뽕나무를 숭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1545년에 세워진 상주목사 손중돈(孫仲敦, 재임 1506~1509)의 선정비문에도 농사와 양잠을 육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음(경상북도문화재).
-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옛날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금자(尺)와 은자(尺)가 있어서 하염없이 사람이 늘어나서 나라님도 걱정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자를 땅에 묻기로 하였는데, 금으로 만든 자(金尺)는 지금의 경주 금척에, 은으로 만든 자(銀尺)는 지금의 상주 은척에 묻었으며, 은자가 묻힌 산이라 하여 ‘은자산’이라 부르고 은자산의 이름을 따서 ‘은자골’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음.
- 뽕나무는 예부터 잎이 양잠으로 활용되며, 친잠례 거행 등 궁궐의 행사, 의류 산업과 연계된 실생활에서 행해지는 생산과 관련한 서민들 생활속에 보존된 노거수로 우리 역사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유용한 수종이며, 이미 창덕궁에 있는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뽕나무로서 보기 드문 노거수로서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양의 오디가 열릴 정도로 수세도 양호하고,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족적,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주지역이 양잠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지정구역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등 7필지, 2,585㎡

○ 보호관리사항 검토

- 문화재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뽕나무 생육에 충분한 문화재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나무 뿌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수관폭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 폐농가, 감나무와 경쟁상태로 생육공간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매입이 필요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수직으로 자라는 많은 도장지를 제거하여 생육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고, 옆의 감나무와 수관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 감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토제거와 보호시설 확장이 필요함.

○ 전문가 종합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 조선시대 및 근대의 농민의 양잠역사를 담고 있는 최고령의 뽕나무로서, 현재의 다양하고 풍부한 섬유가 생산되기 전의 농산업의 역사성을 간직한 상징물임.
-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의 뽕나무는 친잠례 거행 등 궁궐의 행사 등과 관계하고 있지만, 두곡리의 뽕나무는 의류 산업과 연계된 실생활에서 행해지는 생산과 관련한 서민들 생활속에서 보존된 노거수임.
- 우리나라 최고령의 뽕나무로 추정되는 만큼, 수간 부위가 일부 동공이 발생하여 상처치료된 상태이며, 상부 주가지는 당김줄이 설치되어 있지만, 비교적 원형의 수형을 나타내고 있음.
- 두곡리의 뽕나무는 조선시대와 우리 근대사에 걸쳐 양잠산업 권장속에서 300년 이상의 노거수로 두곡리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1970년대 중반까지 매년 100만 본 이상의 뽕나무 묘목을 두곡리에서 생산하는 등 농민의 삶속에서 농산업으로 발달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신라시대의 촌락문서(신라장적)에는 잣나무와 호두나무와 함께 “뽕나무는 모두 1,004그루였으며 3년간 심은 것이 90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914그루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을 만큼 신라시대 이래 각 마을마다 뽕나무 재배는 중요한 과업이었음.
- 1970년 이후 양잠업의 쇠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하던 뽕나무 노거수들도 점차 사라져가는 이때에, 자원 수목에 대한 재배 역사의 흔적으로 양잠이 번성했던 상주 지역에 현존하는 최고(最古), 최대의 뽕나무가 보전되어 있음은 우리에게 축복임.
- 역사성(생활 민속), 학술성(유용자원 수목)의 가치로 평가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함.

<*** 상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뽕나무는 예부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무이고 오래된 노거수로서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다른 나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차별성이 있으며, 수백년 세월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됨.
- 오로지 뽕잎을 많이 수확하고자 하는 특성상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도 수백년을 이어온 것은 역사적이고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천리포수목원 이사 / 2019.11.25.>

- 뽕나무는 식물로서의 가치도 높지만, 이 지역이 오래 전부터 뽕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하던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음
- 수령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무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임
- 뽕나무 수종 가운데에 대표적인 나무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뽕나무 재배 역사와 실태에 대한 역사·문화적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
- 뽕나무 가운데에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창덕궁 뽕나무’에 비하면 수령이나 규모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는 나무여서 천연기념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나무임
- 뽕나무 집중 재배지역이었던 상주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아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이유는 매우 충분함

(2) 지자체(***) 의견(2019.3.4.)

- 한강이남 최고령 뽕나무로 양잠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높아 상주가 양잠의 고장이었음을 실증해 주며, 잠종(蠶種) 1장분의 누에를 사육할 정도로 뽕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수세가 왕성함. 삼백의 고장을 표상하는 추정수령 300년의 노거수라 할 수 있음.

바. 참고사항

(1)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 : 7필지, 2,585㎡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면적(㎡)	비고
상주 은척면 두곡리	324	전	*****	952	952	
	640	도	국(***)	3,082	200	
	638-5	구거	국(****)	7,333	100	
	323-2	대	개인	403	403	
	323-3	대	개인	451	451	
	310	대	개인	291	291	
	309	대	개인	188	188	
합계				12,700	2,585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 기타자료(2017년 우수자원지정조사 보고서/*****)

(1) 일반현황



지정조사 2017. 07. 01.
자연문화재연구실

- 전통문화 | 생활민속 > 의식주
 - 대표식물 | 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과 (Moraceae)
 - 유 형 | 단목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 대표좌표 | N36° 39' 09.0" E128° 04' 29.2"
 - 면 적 | 194m²
 - 소유구분 | 사유지
 - 관리자 | 상주시농회
- 경상북도 기념물 제1호(1972. 12. 29.)

(2) 생육현황

(가) 규모

- 수령 : 약 300년 ○ 수고 : 10m ○ 가슴높이둘레 : 393cm
- 수관폭 : 동-서 12.7m, 남-북 16.2m

(나) 생육상태

- 수고 10m, 가슴높이둘레 393cm, 수관폭 동-서 12.7m, 남-북 16.2m의 노거수로 상처치료 흔적이 있으며, 일부 가지는 지지대를 받쳐 놓았다. 줄기는 지상 2.5m 높이에서 2갈래로 갈라지며, 전체적으로 수형이 수려하고,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나무 밑 남쪽으로 일제강점기 때 상주 군수 최병택이 세운 명상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보호 철책과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경(3월)

외과수술, 지지대

안내판



전경(7월)

주간부

<상주 두곡리 뽕나무 생육환경>

(다) 입지환경

○ 인문환경

- 은척면은 상주시 서북단 22km지점에 위치하며 외서·공검·이안면, 문경시 농암면과 경계를 이룬다. 지형은 백두대간 속리산 지맥의 남산, 칠봉산, 작약산 등이 있으며 임야면적이 76%에 달한다.

○ 주변 문화재

- 마을회관 맞은편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75호인 은행나무 노거수가 있으며, 남측으로 약 3.6km 떨어져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120호인 동학교당이 있다.

○ 찾아가는 길

- 두곡리(띠실마을) 마을회관에서 서쪽 운현소류지 방향으로 약 150m 이동하면 주거지 끝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농경지이다.

○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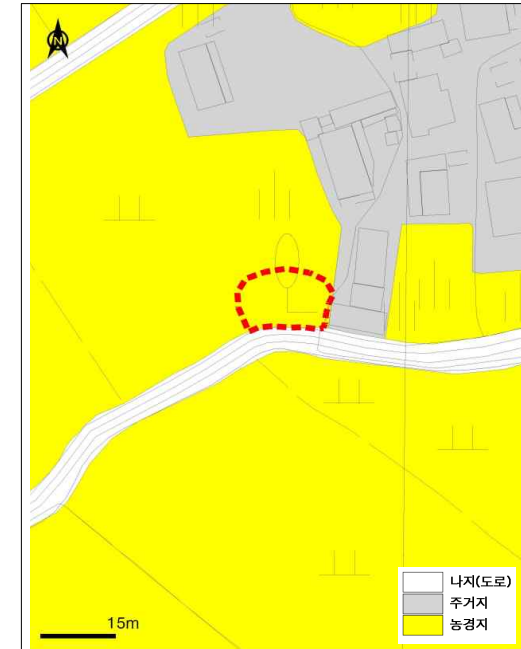
- 주변 인접 지역은 평탄지로서 주거지와 농경지가 대부분이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 지적현황



상주 두곡리 뽕나무 항공사진



<상주 두곡리 뽕나무 지정구역(안) 및 토지이용 현황>

(라) 전통문화 배경

- 상주는 삼백(三白)의 하나인 양잠(養蠶)의 고장으로서 1397년 진사 김직지(金直之)의 『육익정기(六益亭記)』에 이미 고려 말 뽕나무를 숭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1545년에 세워진 상주목사 손증돈(孫仲敦, 재임 1506~1509)의 선정비문에도 농사와 양잠을 육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경상북도문화재).
-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옛날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금자(尺)와 은자(尺)가 있어서 하염없이 사람이 늘어나서 나라님도 걱정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자를 땅에 묻기로 하였는데, 금으로 만든 자(金尺)는 지금의 경주 금척에, 은으로 만든 자(銀尺)는 지금의 상주 은척에 묻었으며, 은자가 묻힌 산이라 하여 ‘은자산’이라 부르고 은자산의 이름을 따서 ‘은자골’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마) 지정조사 의견('17.7.1.)

<*** 前문 화재위원>

- 뽕나무는 사람 키 살짝 높이로 흔히 우리들과 만난다. 제 자람대로 두면 지름 1m가 넘는 아름드리가 되나 뽕잎을 쉽게 따기 위하여 낮게 키웠으므로 고목이 드물다. 겹껍질은 세로로 깊게 갈라지고 안 껍질이 노란 것이 특징이다. 나무의 속은 황색 빛을 띠고 있어서 독특한 정취가 있고 단단하며 질기고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밤나무와 같이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위패를 만들었고, 나무배의 겉 판자를 잇는 나무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 굵은 나무는 경산 임당 삼국초기 고분에서처럼 관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 최고의 뽕나무 고목은 경북 상주 두곡리 마을의 끝자락, 허름한 농가의 뒤편 감나무 밭 가장자리에 자란다. 경북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 때는 누에고치 30kg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의 뽕잎을 뺐다고 한다. 이 처럼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은 이 일대에 많은 양잠 농가가 있었고 뽕나무의 재배를 권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옛날의 뽕나무 재배 방식은 밭에 대단위로 재배하는 것보다 울타리나 논두렁 등 농작물 재배에 부적당한 곳에 심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마을에는 이 뽕나무 이외에도 둘레 2~3m에 이르는 큰 나무들이 4그루나 더 있었다고 한다. 또 나무 밑에는 일제강점기 때 상주 군수 최병택이 건립한 명상기념비(名桑記念碑)가 세워져 있다. 조선 인조(1623~1649) 때 상주 일원에 뽕나무의 재배를 권장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나무의 크기로 보아 당시에 심은 나무로 짐작되며 나이 약 350년이 된 셈이다. 이 뽕나무는 누에먹이 잎뿐만 아니라 맛있는 오디도 잔뜩 매단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 뽕나무의 가지를 꺾어다 일본에 가져가서 접을 붙일 만큼 좋은 뽕나무로 알려져 있었다.
- 나무의 역사성, 경관성, 학술적 가치 어느 것이나 천연기념물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존 상태도 좋으며 우리나라 뽕나무로서는 최대 규모이며 이 일대가 양잠이 성행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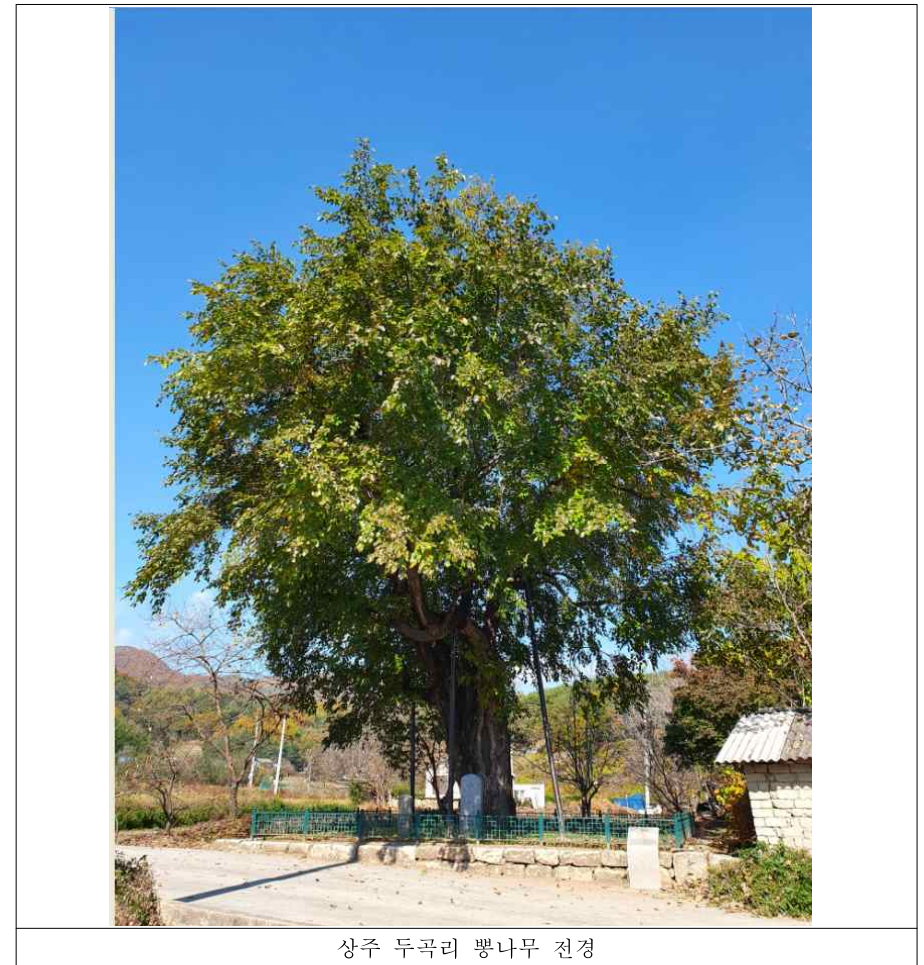
<*** 前문 화재위원>

- 나무는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삼면으로 마을도로와 농지, 민가를 접하고 있다. 나무의 주간은 곧게 올라가다가 약 2.5m 높이에서 크게 둘로 갈라지고, 남쪽 줄기가 다시 둘로 갈라졌으며, 주간 곳곳에 충전처리 된 곳이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수형은 단정하고 아름다운 편이다.
- 나무 아래에는 일제 강점기 때의 상주군수 최병택이 건립한 명상기념비

(名桑記念碑)가 남아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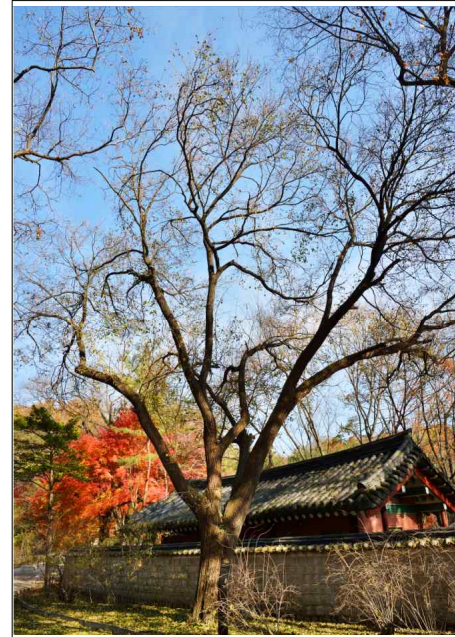
- 이 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창덕궁뽕나무 보다 크고 수형이 아름다운 뿐 아니라, 이 일대가 오래전부터 양잠이 성행했던 곳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념비적인 나무이므로 새로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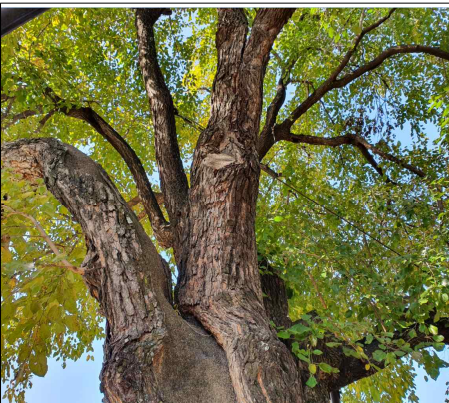
상주 두곡리 뽕나무 주변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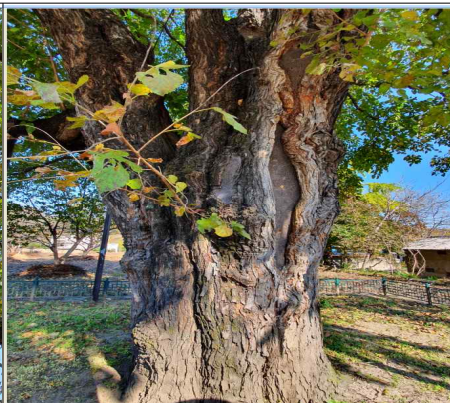
창덕궁 뽕나무(천기 471호) 가을 전경



창덕궁 뽕나무(천기 471호) 줄기



상주 두곡리 뽕나무 수관부



상주 두곡리 뽕나무 줄기부

14.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가치상실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가치상실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하고자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19. 9. 7. 태풍 제13호 링링 피해(지제부(밀동) 절단 및 도복)
 - '19. 9. 9. 피해 점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문화재전문위원 ***, ***)
 - 생물학적 가치상실로 지정해제 필요, 기념 및 활용방안 검토
 - '19.11.15. 지정해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문화재위원 ***, ***,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해제내용
 -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 지정면적 : 58.2㎡
 - 규 모 : 1주, 수령 250년 추정, 높이 30m, 근원둘레 6.6m
 - 지 정 일 : 2012.11.13.
 - 해제사유 : 태풍 제13호 링링 피해로 인한 밀동절단 및 도복으로 문화재 가치 상실

라. 검토의견 (*****)

- 2019. 9. 6. 태풍 링링 피해로 지제부(밀동)가 절단 후 도복되어,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며, 해제 이후 기념 및 활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 11.15.)

<*** 문화재위원>

- 태풍에 의한 밀동 부러짐으로 인해 학사대 전나무의 생물학적 가치는 상실

된 것으로 여겨짐으로, 지정해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사대 전나무가 지녔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학사대 전나무가 보유했던 천연기념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생물학적 및 형태적으로 훼손되어 존치의 의미가 상실된 밀동은 제거하고, 이 자리에 학사대 전나무 주위에 생육하고 있는 육안으로 확인된 후계목들 중 수형과 생육상태가 우수한 후계목을 선정(DNA 분석)하여 이식
 - 태풍에 의해 전도되어 도로변 사면에 쓰러져 있는 줄기부의 경우, 쓰러지는 과정에서의 지면과의 충돌과 마찰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지들이 부러지는 등 수형의 원형이 훼손되었으므로 이 줄기부의 현장 존치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줄기부 중 목질의 상태가 양호한 부분을 선별하여, 이의 활용 방안 검토
 - 학사대 전나무의 역사문화적 유래와 천연기념물로서의 이력, 해제 이후의 기록 계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 설치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 541호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가 해제 건으로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강풍으로 도복되어 지정해제 검토건 임. 현재 완전히 뿌리부근에서 절단되었으며, 도복이전에 이미 뿌리가 상당부분 부후되어 있는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천연기념물 지정해제가 타당함.
- 단, 본 학사대 전나무의 역사적 가치는 후대에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현재 도복된 나무 및 장소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해인사 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바,
 - 첫째, 나무뿌리가 남아 있는 현재의 위치에 뿌리를 그대로 보전처리하여 존치하는 방안은 이미 뿌리의 대부분이 부식된 상태로 천연기념물로서의 위상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이며 남은 뿌리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흰개미 등 주변 목재 문화재에 대한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렵다고 판단됨.
 - 둘째, 후계목 식재는 이미 본 나무가 최치원 선생이 처음 시작한 나무의 3대손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인근 숲에 자연발아 된 후계목으로 추정되는 수고 1m내외의 개체들이 있던 바, 이 가운데 수형을 대표할 만한 개체를 선정, 유전분석으로 후계나무임을 확인 한 후, 나무가 있었던 자리를 재정비하여 식재하고 4대손으로 그 뜻을 기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셋째, 도복된 나무의 줄기를 넘어진 자리 주변에 존치하여 나무를 기리는

방안은 현재 나무의 위상이 그대로 살아나기엔 줄기와 가지들이 손상을 입었으며 그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나무를 자연그대로 존치하여 자연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목재부후와 관련된 병해충의 유도로 인근 중요한 목재문화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현재 쓰러져 있는 나무를 재가공하여 본 나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인위적인 목재조각상이나 조형물보다 가능한 한 목재의 수형의 훼손이 적은 상황에서 가치를 재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위원>

-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의 실태
 -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의 절단부는 지상 1m 이내이며, 그루터기의 95% 이상이 동공(洞空)이고 목질부도 대부분 부후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임.
 - 해당 전나무는 극히 일부의 줄기 생장조직에 의존하여 생존해 왔고, 줄기의 지지기능이 없어서 태풍에 절단된 것임.
-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의 천연기념물 해제 관련 의견
 - 해당 전나무는 동공과 부후된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전나무의 향후 활용방안 등
 - 그루터기와 땅 속 뿌리들까지 부후가 진행되어 현지 보존처리가 불가능하고, 방치할 경우 흰개미 등의 서식처가 되어 사찰의 목조건축물에 심각한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굴착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절단된 줄기는 박피, 건조, 방부 처리하여 ‘고운선생 부조상(해인사 의견)’, 통나무 의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형하여 현장에 설치함으로써 천연기념물 지정내역을 전승할 필요가 있음. 활용방법은 목공예 전문가들 에게 위임.
- 후계목 육성 등
 - 절단된 전나무는 고운선생이 심은 나무의 3대손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인근 숲에 어린 전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고사한 전나무의 종자로부터 자란 것들로 거의 확실함. 이 치수들을 잘 보존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후계목임이 밝혀지면 4대손 전나무로 고사현장에 이식하여 육성하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임.

(2) 지자체(***, ***) 해인사 의견(2019.10.4.)

- 태풍피해로 도복되어 생물학적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문헌,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장소성·역사성의 가치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도복된 전나무의 보존처리와 생육하고 있었던 장소에 대한 보존·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보존처리의 방법·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인사, 문화재위원,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결정
 - * 후계목 육성 위해 삼수 채취(9.9.),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합천군 산림과에서 삼목 및 접목 육성 중이며, 용담선원 인근 후계목 추정 1그루가 생육 중으로 향후 DNA 검사 등을 통해 후계목 여부 확인 예정

(3) 태풍피해 실태조사 관계전문가 의견(2019.9.9.)

<*** · *** 문화재전문위원>

- 태풍 링링 피해로 밑둥이 절단되어 생물학적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 해제 추진 필요
- 문화재 해제 이후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해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후속조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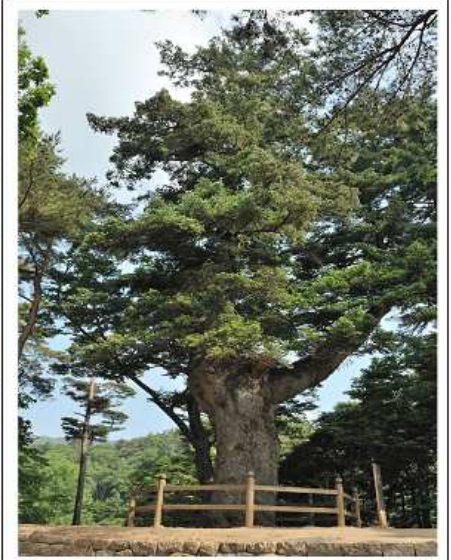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현황사진]



위치도



태풍피해 전 현황



태풍 피해



태풍 피해



태풍 피해



현장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합천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보존처리 의견제출

제13호 태풍 "링링"내습에 따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피해목 보존처리를 위한 우리군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합천군 의견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2.11.13.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강풍으로 절단 및 도괴되어 생물학적 가치는 상실하였으나,
- 신라의 학자이자 문장가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학사대를 떠나며 꽃아 둔 지팡이가 전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 등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의 역사적 가치는 후대에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현재 도복된 나무와 생육하고 있었던 장소에 대한 보존처리가 필요함
- 보존처리의 발위·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관계전문가와 해인사 관계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합천군



수신자 문화재청장(천연기념물과장), 경상남도지사(가야문화유산과장)

주무관 김정호 문화재계장 정경희 문화유산과장 문동구
협조자 주무관 권성일
시행 문화유산과-15571 (2019. 10. 4.) 접수 천연기념물과-6582 (2019. 10. 4.)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 www.hc.go.kr
전화번호 055-930-3176 팩스번호 055-930-3179 / banarchy@korea.kr / 대국민 공개
무패없는 밝은 사회 희망주는 열린 합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경상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풍 피해 조치계획 제출(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6074호(2019.9.10.)와 관련됩니다.
 2.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로 도복된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천연기념물 제541호)의 향후 활용방안 등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아울러, 도복된 전나무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 향후 활용방안 등 조치계획
- 가. 활용방안(합천군, 해인사)
- 도복된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천연기념물 제541호)는 태풍 피해로 생물학적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 신라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문헌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그 장소성·역사성의 가치는 후대에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도복된 전나무의 보존처리와 생육하고 있었던 장소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은 반드시 필요함.
 - 보존처리의 방법·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인사,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나. 후계목 육성 관련
- 2019. 9. 9.(월) 다량의 삽수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원, 합천군 산림과에서 삽목 및 접목 육성 중.
 - 용담선원 인근 후계목 추정 1그루가 생육 중으로, 향후 DNA 검사 등을 통해 후계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경상남도



수신자 문화재청장(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청장(안천기념물과장)

주무관 강형근 문화재보수담당 이원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희
협조자
시행 가야문화유산과-14204 (2019. 10. 4.) 접수 천연기념물과-6602 (2019. 10. 6.)
우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4583 팩스번호 055-254-4419 / blue709@korea.kr / 비공개(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11.25-27, 부산)

【보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11-15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69건)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변경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어촌계사무실) 신축 - 사업목적 : 김양식 물양장 호이스트 설치로 어업 경쟁력 강화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616-95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어촌계사무실 신축 · 지상1층, 건축면적 172.50㎡, 연면적 172.50㎡, 높이 4.1m, 판넬구조 ○ 허가기간 : 2019.10.22.~2020.10.31. ○ 허가조건 - 사업지 내 무허가 임시 가건물 등 인근 주변 지역을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철거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 중 겨울 철새 도래기간인 11월~익년 3월까지 사업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낙동강하류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선박운항 - 사업목적 : 낙동강하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위치 : 낙동강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실시간 염분자동측정장치 설치(2개소),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14개소) · 낙동강 하굿둑 선박 운항 (해수면) 하굿둑 연안사주주변 등 습지보호구역(13km) (내수면) 하굿둑~창녕합안보 하류(76km)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시설물 설치기간 : 2019.10.29.~2019.12.31. - 선박운항 기간 : 2019.10.29.~2022.12.31. ○ 허가조건 - 낙동강하류둑 선박(해수면, 내수면)은 월 1회 운항하시기 바람(철새도래기간 11월~3월 운항금지, 단 수질, 수생태계 이상 및 각종사고 및 방재, 구난활동 지원시 운항) - 장기적으로 전기동력선으로 교체하여 수생태계 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권고함.	
	3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생곡SRF명지열원간 연계 열배관공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생곡동 일원(문화재구역, 허용기준 1,2,4,5구역) - 사업내용 : 총연장5.400m(개착연장 4.780m, 추진연장 620m) · 문화재구역(서낙동강 횡단구간) : SEMI SHIELD 공법 620m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3,610m · 문화재 제외연장 : 1,170m ○ 허가기간 : 2020.4.1.~2021.7.31. ○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 저감방안을 준수하되, 사업기간 전·중·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철새 도래기간인 11월 ~ 익년3월 까지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4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광역시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공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641번지 (허용기준 2, 5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2,020㎡ · 기초공사 : 강관(D 500mm, L 57.3m), 기초패드 (W 42m×L 49m) · 건축분야 : 전기실(W6.0m×L39m×H5.0m), 운영실(W6.4m×L6.4m×H5.0m) · 기계분야 : 연료전지 설치(440kW×22대), 배관공사 · 전기분야 : 변압시설, 감시제어설비, 소방/건축/전기 ○ 허가기간 : 2020.3.1.~2021.6.30.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 저감방안을 준수하되, 사업기간 전·중·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시기 바람. - 철새 도래기간인 11월 ~ 익년3월까지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을 유발하지 않는 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저감방안 마련 후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시기 바람.)	
	5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대저지구 저수호안 정비공사 - 사업목적 : 대저지구 저수호안 홍수 및 파랑으로 인한 침식부분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606-3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L=730m, B=6m · 토공 : 터파기 530㎡, 되매우기 483㎡, 잔토처리 47㎡ · 호안공 : 사석부설 : 730m · 부대공 : 오탁방지망 1식, 중기 및 자재운반 1식 ○ 허가기간 : 2020.4.1.~2020.6.30. ○ 허가조건 : 공사 시행으로 인한 문화재구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람.	<조건부 허가>
	6	동물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중개 서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무허가축사 양성화(우사) - 사업목적 :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대상으로 신청 -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60-1번지 (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연면적 398.95㎡, 건물높이 5.8m, 지상 1층, 일반철골조 ○ 허가기간 : 2019.10.22.~2019.10.31. ○ 허가조건 : 축사 내 거름 등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시설(야적장소) 및 방지벽(축사)을 마련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시기 바람.	<조건부 허가>
	7	동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새연교 일원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작업장 및 야적장 설치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무태장어 서식지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홍동 2565천 일원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EGI웁스 68m, 높이 2m ·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2동 36㎡(3m*6m, 높이 1.8m) · 야외작업장 181㎡ ○ 허가기간 : 2019.11.22.~2020.6.30. ○ 허가조건 : 작업장 및 야적장 설치시 우수에 의한 토사나, 폐기물들이 주변 서식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람.	
8	동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채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가금제 제방복구공사 - 사업목적 : 조류 및 집중호우 피해로 제방붕괴와 웅벽전도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23-12 일원(문화재구역 및 1구역) - 사업내용 : L=817m · 웅벽 및 철책 전도구간 재설치 L=189m · 제방 및 고수부지 유실구간 보강계획 L=802m ○ 허가기간 : 2019.10.29.~2021.10.31. ○ 허가조건 - 사업추진시 개리, 채두루미 등 조류의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람, 겨울철 철새 도래기간(12월~익년 3월)은 사업을 중지하시기 바람.(단, 사업 공정상 기초작업(철책제거, 진입로 조성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람.) - 장기간 공사(2년)로 사업기간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바람.	<조건부 허가>	
9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등 3명 ○ 허가사항 - 사업명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 1113-16, 18, 19, 20, 21(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총면적 4,871.30㎡(4구역 3,112.00㎡, 구역 외 1,759.30㎡) · 발전시설 면적 2,513.61㎡, 높이4.666~5.716m, 기계설 2.10m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2019.11.22~2020.11.30. ○ 허가조건 : 시설물로 인한 빛 반사 등 문화재구역 주변에 미치는 저감방안(차폐나무 식재 등) 마련 후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시기 바람.	
10	동물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무허가축사 양성화(우사) - 사업목적 :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대상으로 신청 - 사업위치 : 진도군 군내면 나리 294, 292-1, 292-3, 292-4, 579-1, 579-5 (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2,455.00㎡, 건축면적(연면적) 825.71㎡(건물 4동), 높이 4.7m, 강파이프 구조 ○ 허가기간 : 2019.11.22~2019.12.31. ○ 허가조건 : 축사 내 거름, 오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우사, 퇴비사) 등 진도군에 제출한 이행계획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이행계획 결과를 관할 문화재부서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으시길 바람.	<조건부 허가>	
11	동물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저어새 보존 및 동계사육 ○ 허가사항 : 저어새 사육 ○ 개체수 : 2개체 ○ 장소 :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군) ○ 허가기간 : 2019.10.29.~2024.10.28.	<허가>	
12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산양 증식 기술 개발 ○ 허가사항 : 산양 사육 ○ 개체수 : 2개체 ○ 장소 :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군) ○ 허가기간 : 2019.10.31. ~ 2024.10.30.	<허가>	
13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영구장애 수리부엉이 사육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사육 ○ 개체수 : 1개체 ○ 장소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하남시지회 ○ 허가기간 : 2019.10.31.~2024.10.30.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4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황조롱이 소각 ○ 개체수 : 3개체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13.	<허가>
	15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산양 폐사체 부검 및 소각 ○ 허가사항 : 산양 부검 후 소각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14.	<허가>
	16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황새 성감별 및 유전자원 확보 ○ 허가사항 : 황새 가락지 부착 및 시료채취 ○ 개체수 : 11개체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30.	<허가>
	17	동물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연구 ○ 허가사항 : 점박이물범 방사(위치추적기 부착) ○ 개체수 : 1개체 ○ 장소 : 경주시 양남면 일원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14.	<허가>
	18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매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매 소각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14.	<허가>
	19	동물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저어새 폐사체 질병검사 ○ 허가사항 : 저어새 질병검사 ○ 개체수 : 2개체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30.	<허가>
	20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황새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황새 소각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10.31.~2019.11.14.	<허가>
	21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등 4종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유전자분석 연구 목적 시료 채취 및 전시용 박제제작 ○ 허가사항 : 시료채취 및 표본제작 ○ 개체수 : 9개체(황조롱이 5, 소쩍새2, 수리부엉이1, 올빼미 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장 소 : 국립생물자원관 ○ 허가기간 : 2019.11.05.~2019.12.31.	
	22	동물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수달 방사 및 복원연구 ○ 허가사항 : 수달 방사 ○ 개 체 수 : 2개체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502-11 ○ 허가기간 : 2019.11.06.~2019.12.05.	<허가>
	23	동물	천연기념물 제243-2호 검독수리	○ 신청인 : ***** ○ 신청목적 : 검독수리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검독수리 소각 ○ 개 체 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11.05.~2019.11.19.	<허가>
	24	동물	천연기념물 제215호 흑비둘기	○ 신청인 : ***** ***** ○ 신청목적 : 흑비둘기의 이동경로 연구 ○ 허가사항 : 흑비둘기 포획 및 위치추적기 부착후 방사 ○ 개 체 수 : 1개체 ○ 장 소 : 독도 일원 ○ 허가기간 : 2019.11.11.~2019.12.31.	<허가>
	25	동물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사용 박제제작 및 유전자원 확보 ○ 허가사항 : 수달의 폐사체 박제 및 시료채취 ○ 개 체 수 : 1개체 ○ 장 소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19.11.11.~2019.12.31.	<허가>
	26	동물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저어새의 유전자 분석연구 및 전사용 박제 제작 ○ 허가사항 : 저어새 폐사체 시료채취 및 표본제작 ○ 개 체 수 : 3개체 ○ 장 소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19.11.11.~2019.12.31.	<허가>
	27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소독 증대용 사육 ○ 허가사항 : 원앙 사육 ○ 개 체 수 : 10개체 ○ 장 소 : 울산시 북구 송정동 906-4 ○ 허가기간 : 2019.11.12.~2024.11.11.	<허가>
	28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황새임시 이동사육 ○ 허가사항 : 황새 이송 및 사육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황새	○ 개 체 수 : 20개체 ○ 장 소 : 예산황새공원 ○ 허가기간 : 2019.11.14.~2021.11.13.	
	29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4호 쇠부엉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쇠부엉이 폐사체 소각 ○ 허가사항 : 쇠부엉이 소각 ○ 개 체 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19.11.14.~2019.11.27.	<허가>
	30	동물	천연기념물 제215호 흑비둘기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생물자원 확보 및 유전자 분석 ○ 허가사항 : 흑비둘기 표본제작 ○ 개 체 수 : 1개체 ○ 장 소 : 국립생물자원관 ○ 허가기간 : 2019.11.15.~2019.12.14.	<허가>
	31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수리부엉이 이동경로 연구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 개 체 수 : 2개체 ○ 장 소 : 아산시 웅봉면, 천안시 서북구 일원 ○ 허가기간 : 2019.11.15.~2019.12.14.	<허가>
	32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사용 박제 제작 ○ 허가사항 : 전사용 박제 제작 ○ 개 체 수 : 수리부엉이 표본제작 ○ 장 소 : 양평곤충박물관 ○ 허가기간 : 2019.11.15.~2019.12.31.	<허가>
	33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성감별을 위한 폐사체 시료채취 ○ 허가사항 : 참매 시료채취 ○ 개 체 수 : 32개체 ○ 허가기간 : 2019.11.15.~2019.12.14.	<허가>
	34	식물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96-1, 2990-4번지 (1,2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0m) - 사업내용 · 시설면적 1,740㎡(비닐하우스 8개동), 최고높이 5.2m 등 ○ 허가기간 : 2019.10.29.~2020.10.28.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35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독도 천연해조장 자연암반 개선 및 해조이식 작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해역(1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0m) - 사업내용 : 갯닭이 0.2ha, 해조류 이식 200개체 ○ 허가조건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허가기간 : 2019.11.12. ~ 2019.12.31.	<허가>
	36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보호울타리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산1-1 등 4필지(1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9km) - 사업내용 : 메쉬웬스 설치 L=166.6m (H1.5*W2.02) ○ 허가기간 : 2019.11.12. ~ 2020.11.11.	<허가>
	37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서귀포시 하효동 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번지(1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8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895㎡, 건축(연)면적 178.58㎡(지상1층) · 건물최고높이 6.55m(평지붕),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기간 : 2019.11.12. ~ 2020.11.11.	<허가>
	38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생활형 숙박시설(5개동) 신축에 따른 진입로 조성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229-11(2,3,4구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36m) - 사업내용 : 진입로 신설 L=138m, B=6m ○ 허가기간 : 2019.11.12. ~ 2020.9.30.	<허가>
	39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설악산 진입로 교통상황 안내 전광판 설치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27(문화재구역 내)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사업내용 : 전광판(최고높이 3.58m, 폭 4.01m) 1개소 ○ 허가기간 : 2019.11.12. ~ 2019.12.31.	
	40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 64-2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통신용 기지국 철탑 최고높이 41m(피뢰침 6m포함), IP주 3개소 H7m, 철탑 출입방지 웬스 H1.8m, L=44m ○ 허가기간 : 2019.11.12. ~ 2020.12.31.	<허가>
	41	식물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단독주택 개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2길 2(1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10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53㎡, 건축(연)면적 136.6㎡(지상1층) · 건물최고높이 5.5m, 동백나무 4주식재, 정화조설치 ○ 허가조건 - 건축 최고높이는 5.5m로 하되, 지하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관리단체는 허가조건 확인 후 준공도면 및 사진자료 제출 ○ 허가기간 : 2019.11.19. ~ 2020.11.18.	<조건부 허가>
	42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SK Telecom 독도 Microwave 시설 계획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안영북길 3(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헬기장하부 : 래프트 1개소, 랙 3개 · 철탑 : SKT안테나 2개(기존 KBS 안테나 철거) ○ 허가기간 : 2019.11.19. ~ 2019.12.31.	<허가>
	43	식물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함양 상림 주변 진출입 목교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9(교산리 1076번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사업내용: 목교 설치 11㎡, 디딤돌 포장 35㎡ ○ 허가기간 : 2019.11.6.~2019.12.31.	
	44	지질	천연기념물 제392호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군부대 내 폐기물보관시설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50번지 4호(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군부대 내 폐기물보관시설 · 규모 : 지상 1층, 35㎡, 최고높이 3.35m ○ 허가기간 : 2019.10.22.~2020.10.21. ○ 허가조건 - 폐기물보관시설의 주위는 식재에 의한 차폐(가능한 주변 생육수종과 동일 수종 식재) - 폐기물보관시설로부터 오폐수 유출 방지 대책 수립 시행	<조건부 허가>
	45	지질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방문자센터 파고라 설치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 8번지(지정구역내) - 사업내용 : 방문자센터 파고라 설치 · 규모 : 설치면적 16㎡, 4m*4m*2.8m (목재구조) ○ 허가기간 : 2019.11.19.~2020.12.31.	<허가>
	46	지질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골프장신축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268번지 1호(2구역) - 사업내용 : 골프장설치 · 부지면적 : 720,433㎡ · 부지면적 : 건축시설 : 골프코스 18홀, 클럽하우스 1개동, 숙박시설 1개동, 티하우스 2개동, 관리동1개동, 수위실 1개동 · 도로등 공공시설 : 주차장 1개소, 오수처리시설 3개소, 물탱크 1개소, 저류지, 도로 675㎡ · 조경녹지 : 302,518㎡ ※최초허가(2010.10.01.) 후 사업자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허가기간이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만료되어 재신청된 건임 ○ 허가기간 : 2019.11.19.~2020.9.3. ○ 허가조건 - 최초 허가 시(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4315호(2010.10.01.)) 허가조건 이행	
	47	지질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야자매트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65번지 1호 (1구역) - 사업내용 : 야자매트 설치 · 설치면적 : 276.35㎡(1구역 : 99㎡, 2구역 : 177.35㎡) ○ 허가기간 : 2019.11.19.~2019.12.19. ○ 허가조건 - 조정된 사업 구역(2개구역)만 시행	<조건부 허가>
	48	지질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주차장관리소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65번지 (1구역) - 사업내용 : 주차장관리소 신축 · 건축면적 : 9.75㎡ · 건축높이 : 2.3m(1층) ○ 허가기간 : 2019.11.19.~2021.12.31. ○ 허가조건 - 터파기 없이 건축 시행(기 설치된 보도블럭 제거 후 앵커 고정) - 건축물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로 부터 2021.12.31.까지이며 허가기간 만료전 3개월 전 재 신청 -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 주차장관리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조건부 허가>
	49	명승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소남머리공원 경관개선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3-14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꽃조명 설치, 수목 식재 ○ 허가기간 : 2019.10.25.~2019.12.3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0	명승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축사 증축 - 사업위치 : 부여군 규암면 신리 259 (문화재구역 380m 이격) - 사업내용 : 축사증축(400 → 790㎡) ○ 허가기간 : 2019.10.22.~2019.12.31.	<허가>
	51	명승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쉼터 조성 - 사업위치 : 남해군 남면 홍현리 940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나대지→쉼터, 관광사인물 설치 ○ 허가기간 : 2019.11.5.~2020.11.3.	<허가>
	52	명승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8-2 (문화재구역 7m 이격)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1동, 주차대수 2대 · (대지면적 826㎡, 건축면적 135.13㎡, 건축높이 5.6m(지상1층 경사지붕)) ○ 허가기간 : 2019.11.8.~2020.11.7. * 2016년 허가 이후, 기간 도과로 재신청 접수됨	<허가>
	53	명승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다목적동 연결복도 증축 - 사업위치 : 남원시 금동 77(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연결복도 5.94㎡(건물사이 연결 회랑식) ○ 허가기간 : 2019.11.5.~2020.11.4.	<허가>
	54	명승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 신청인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사성암 창고 보수 - 사업위치 :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창고(14.39㎡) 내·외부 및 기와 보수 ○ 허가기간 : 2019.11.8.~2020.11.7.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5	명승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 신청인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사성암 지장전 보수 - 사업위치 :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지장전 내·외부 및 기와 보수 ○ 허가기간 : 2019.11.8.~2020.11.7.	<허가>
	56	명승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천진암 석축 정비 - 사업위치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2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석축 정비 70.5m(높이 0.2~3.6m) ○ 허가기간 : 2019.11.13.~2020.11.12.	<허가>
	57	명승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 신청인 : *** *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위치 :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우수관로 56m, 오수관로 1,072m 정비 ○ 허가기간 : 2019.11.13.~2021.12.31.	<허가>
	58	명승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농지 조성 - 사업위치 :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산 137-1(문화재구역 280m이격) - 사업내용 : 경작을 위한 농지조성(18,538㎡) ○ 허가기간 : 2019.10.29.~2020.10.28. ○ 허가조건 - 경작용으로 한정함(그 외 별도 심의함)	<조건부 허가>
	59	명승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회룡포 식생정비 사업 - 사업위치 :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11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수목보식(교목류 242주, 관목류, 초화류) ○ 허가기간 : 2019.10.29.~2020.12.31. ○ 허가조건 - 초화류 일부는 자생종으로 변경함.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60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2019년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목적 : 강마 등으로 낙동강 상류 유입쓰레기 수거·처리로 연안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호 - 사업위치 :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대마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선박 등) 출입 · 쓰레기 수거용 임시 천막 설치(각 1개동 (10m×10m×3m) 설치) · 출입인원 50명(1일), 계획물량 930톤(폐어구, 폐목재, 페스티로폼, 유리병, 플라스틱 등) ○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2019.5.1~2019.10.31 - 변경 허가기간 : 2019.5.1~2019.11.30 ○ 허가조건 - 소음과 이동시 발생하는 교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이벽을 설치하여 수거하기 바람. - 수거작업은 에코센터 조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주(모래섬)별로 순서를 정하여 1개소씩 실시하기 바람, 상륙시간은 최소한으로 하기 바람.	<조건부 허가>
	61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긴급준설 - 사업목적 : 어선통항로 확보를 위한 좌초 등 사고예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179-130 전면 공유수면(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통항로 준설 : B=50m L=40m A(넓이)=19,016㎡, V(부피)=31,216㎡(준설 20,233㎡, 여굴 10,983㎡) · 오탐방지막 설치 : 25 Span@20m = 500m, 25 Span@20m×2회 = 1,000m(이동거치) ○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2019.7.1~2019.10.31 - 변경 허가기간 : 2019.7.1~2019.12.15 ○ 허가조건 : 사업지 인근 신자도와 진우도 주변 지역은 주요 겨울철새 월동지로 준설작업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2	동물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점박이물범 골격 표본제작 ○ 개체수 : 1개체 ○ 장소 : 고래연구센터 ○ 기 허가기간 : 2018.12.12.~2019.02.28. ○ 변경 허가기간 : 2018.12.12. ~ 2020.12.31.	<허가사항 변경허가>
	63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산양 사육 ○ 개체수 : 1개체 ○ 장소 : 종복원기술원 ○ 기 허가기간 : 2016.11.17.~2019.12.31. ○ 변경 허가기간 : 2019.11.12.~2024.11.11.	<허가사항 변경허가>
	64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산양 사육 ○ 개체수 : 1개체 ○ 장소 : 종복원기술원 ○ 기 허가기간 : 2016.04.18.~2019.12.31. ○ 변경 허가기간 : 2019.11.15.~2024.11.14.	<허가사항 변경허가>
	65	식물	천연기념물 제112호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 신청인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전일암 석축 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전일암 석축 정비 (당초) · A형 석축설치 H1.7m, L=52.8m · B형 석축설치 H2.1m, L=50.0m · C형 석축설치 H2.2m, L=52.4m · D형 석축설치 H0.8m, L=29m · E형 석축설치 H1.7m, L=30.5m · F형 석축설치 H1.2m, L=3.2m · 와편담장 설치 H1.2m, L=49.2m · 배수로설치 W=0.2m, L=49.2m (변경) · A형 석축설치 H1.8m, L=52m · B형 석축설치 H0.8m, L=47m · C형 석축설치 H2.1m, L=46m · D형 석축설치 H0.8m, L=42m · E형 석축설치 H1.7m, L=33m · F형 석축설치 제외 · 와편담장 설치 H1.2m, L=43.5m · 배수로설치 W=0.25m, L=45m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6				○ 당초허가조건 - 석축상단은 주변에서 주로 자생하는 초화류 및 관목류를 선택하여 식재할 것 ○ 허가기간 : 2017.7.5.~2021.7.4.(변경없음)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전통사찰 오세암 진입로 정비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7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당초) · 사찰 경내지 진입로 정비공사(야자메트 깔기 L=40.8m, B1.0m / 진입계단(자연석) L=20.7m, B1.5m) · 범종각 보수공사(기존 목재계단 해체 1개소, 목재계단 설치 2개소, 계자난간 해체 후 재설치 L=11.5m) · 범종각 주변 정비공사(배면 기존석축 해체 후 재설치 L=16m H1.2m 전면 자연석 계단 및 자연석 석축 일부 설치 (변경) · 사찰 경내지 진입로 정비공사(야자메트 깔기 L=26.7m, B2.0m / 진입계단(자연석) L=31.5m, B1.5m) · 범종각 보수공사(기존 목재계단 해체 1개소, 목재계단 설치 2개소, 계자난간 해체 후 재설치 L=11.5m) · 범종각 주변 정비공사(배면 기존석축 해체 후 재설치 L=16m B1.65m, 전면 자연석 (L=14.5m, H0.85m), 누하기단석축 L=35.03m, H0.54m) ○ 당초 허가조건 - 범종각 누하층 창고설치는 제외토록하며, 누하 진입로는 누하주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격하여 설치토록 함 - 종각 전면의 석축은 진입부를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최대한 낮추도록 함 ○ 허가기간 : 2019.5.24.~2020.5.23.(변경없음)	<허가사항 변경허가>
67	지질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	<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8			화석산지	- 리 산 5번지(지정구역내) - 변경 사업내용 : 주차장 추가 설치 · 규모 : 설치면적 6,400㎡, 판석형 잔디블럭 ○ 허가기간 : 2019.11.19.~2023.5.31. ○ 허가조건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임회 하에 실시	
	68	명승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산지 복구 - 사업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87-1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당초) 축대 재설치 23m (변경) 축대 재설치 23m 중 1m 구간 위치변경 ○ 허가기간 : 2019.10.29.~2019.12.31.	<허가사항 변경허가>
	69	명승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 신청인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사성암 지장전 보수 - 사업위치 :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당초) 지장전 기단·가구·지붕 보수 (변경) 오삼불전·요사채 내·외부 보수 추가 ○ 허가기간 : 2019.11.13.~2020.11.12.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접수 7명